

碩士學位請求論文

人文系 高等學校 學生의 進路意識에
關한 調查 研究

指導教授 李 淳 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高 東 韓

1993年 8月

人文系 高等學校 學生의 進路意識에
關한 調查 研究

指導教授 李 淳 珩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高 東 韓



高東韓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7月 日

審査委員長 李 淳 珩
審査委員 李 淳 珩
審査委員 高 東 韓

〈抄 錄〉

人文系 高等學校 學生의 進路意識에 關한 調查 研究

高 東 韓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 專攻

指導教授 李 淳 甝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학교의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의 진로의식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양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 중 대학의 계열선정과 관련한 대학진학의식과 직업선택과 관련한 직업의식의 내용과 수준을 밝혀 보려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 및 질문지 조사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전개하였는데 설문지 분석은 사회조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2문항의 진로의식 조사지가 제작되었으며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단계에서 인문계고등학교 選校가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응답자 대부분이 대학진학과 주위권유를 학교선택 동기로 들고 있었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선교를 행함으로서 그 결과 학교생활에 심각한 부적응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2) 인문계고등학생의 대학진학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남들이 가니까' 등 이른바 상징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었다. 반면 '지식과 교양을 쌓는다'는 목적적 가치의 비중은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특히 상징적 가치의 비중이 높

게 평가됨으로서 인문계고등학생들은 대학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인생살이에서 당연히 거쳐 가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만 하면 특히 일류대학에 진학만 하면 취업이나 사회적 지위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서 공학이나 경상계열 등 소위 '잘 팔리는 학과'가 성별 계열별을 불문하고 선호 학과로 지목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진학당사자의 학과에 대한 인지 수준은 턱없이 낮아 선택한 계열과 계열인지도간에 세심한 지체현상을 보이는 바 이는 결국 진로지도不在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 진로지도자료로 이용되는 각종 심리검사의 활용도가 낮고 교사의 진로지도가 소수를 위한 진학지도에 편중됨으로서 다수의 비진학자를 위한 진로지도는 사실상不在한 상태다. 결국 대다수의 학생이 교사를 대신하여 가족이나 친구, 선배들에게 의존함으로써 적절치 못한 진로결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겠다.

3) 인문계고등학생은 직업을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신장시켜 주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이 대체로 선호되고 있었다.

대체로 대학(계열)선택시는 상징적, 수단적인 가치가 강조되는데 반해 직업선택시는 비교적 목적적인 가치가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이들에게 희망 직업의 認知정도를 물어 본 결과 대다수의 학생에서 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또 이들은 공통적으로 직업 방향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확신에서 있지 않은 상태를 보였다.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의 進路指導는 한 학생이 자신의 미래 생애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생애 개발의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目 次

〈抄 錄〉

I. 緒 論	1
A.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B. 研究의 問題	4
C. 用語의 定義	5
D. 研究의 制限點	6
II. 理論的 背景	7
A. 進路 意識 發達	7
B. 先行研究의 考察	11
III. 研究 方法	17
A. 標集 對象	17
B. 測定 道具	17
C. 資料 處理	18
IV. 研究結果 및 解釋	19
A. 學校·系列 選擇 過程과 適應 程度	19
B. 大學 進學 意識	27
C. 職業 意識	48
V. 要約 및 結論	55
A. 要 約	55
B. 結論 및 提言	61
參考文獻	65
英文抄錄	68
附 錄	71

表 目 次

〈表Ⅱ- 1〉 진로결정 요인	11
〈表Ⅲ- 1〉 분석대상자의 집단별 분포.....	17
〈表Ⅲ- 2〉 영역별 문항수	18
〈表Ⅳ- 1〉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선택 이유	19
〈表Ⅳ- 2〉 학교선택의 주체	21
〈表Ⅳ- 3〉 학교생활의 적응 정도.....	23
〈表Ⅳ- 4〉 계열 선정의 이유.....	23
〈表Ⅳ- 5〉 계열 선정의 주체.....	25
〈表Ⅳ- 6〉 선택 계열에 대한 적응 정도	26
〈表Ⅳ- 7〉 선택계열에 대한 불만 요인	27
〈表Ⅳ- 8〉 대학 진학 목적.....	28
〈表Ⅳ- 9〉 대학 교육의 가치부여에 대한 변화 추이	29
〈表Ⅳ-10〉 대학 진학시 고려 요인.....	31
〈表Ⅳ-11〉 대학 진학 의지.....	32
〈表Ⅳ-12〉 일류 대학 선호의식.....	33
〈表Ⅳ-13〉 대학에 가고 있는 유형에 대한 인식	34
〈表Ⅳ-14〉 대학에 가야 하는 유형에 대한 인식	35
〈表Ⅳ-15〉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평가 의식	36
〈表Ⅳ-16〉 대학 및 학과의 결정의 우선 순위	37
〈表Ⅳ-17〉 진학희망 계열	38
〈表Ⅳ-18〉 희망계열(학과)의 인지 정도.....	41
〈表Ⅳ-19〉 진학 결정 주체.....	42
〈表Ⅳ-20〉 각종 검사의 실시 및 도움정도	43
〈表Ⅳ-21〉 진학과 관련된 고민.....	44

〈表Ⅳ-22〉 교사의 진로지도 정도 및 도움 정도	45
〈表Ⅳ-23〉 부모와의 진로문제 대화 정도	47
〈表Ⅳ-24〉 부모와의 진로문제 대화도움 정도	47
〈表Ⅳ-25〉 취직을 위한 요건.....	49
〈表Ⅳ-26〉 희망 직종의 특성.....	49
〈表Ⅳ-27〉 장래 희망 직업.....	51
〈表Ⅳ-28〉 희망직업의 인지 정도.....	52
〈表Ⅳ-29〉 직업선택에 대한 방향결정.....	53
〈表Ⅳ-30〉 진로 미결정 이유.....	54

그림 목차

〈그림 Ⅱ-1〉 연령에 따른 諸요인의 발달 단계	8
〈그림 Ⅱ-2〉 진로계획 설정의 관련 요인	10



I. 緒 論

A.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를 추구해 나갈 때 비로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심리학자인 Maslow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본래 생리적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야만 개인의 정신적 안정이나 사회적 욕구를 갈구하고 남으로부터의 존경을 받고 싶어하며 중국에 가서는 자아실현의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생애욕구의 충족은 주로 職業을 통하여 실현되어진다.

어떤 職業을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 곧 올바른 進路의 선택, 결정은 결국 한 개인이 어떻게 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애의 문제와 직결되어진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귀속적이었던 전통사회에서 職業은 출생과 더불어 그냥 주어지는 것이었을 뿐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으로 전통적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능력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사회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職業선택을 통한 사회적 신분상승을 이루려는 일반의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산업의 발달에 따른 職業의 전문화 다양화의 진전은 職業의 선택이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를 포함한 사회 전분야의 문제로 인식되어져 職業選擇에 대한 교육적 노력의 요구를 증대시키게 된다.

職業은 개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방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갖게하고 사회성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이른바 자아실현을 이루게 한다. 오늘날 職業은 후자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에서 개인의 進路의 탐색은 단순한 職業의 선택을 넘어서 생애 전체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진다.

進路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進路意識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1) 金忠起, 「生涯教育의 基礎」 (서울: 教育研究社, 1984), p. 273.

과정이다.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進路意識 발달단계는 진로인식기, 진로탐색기, 진로준비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중에서도 중등교육 단계에 해당하는 진로탐색기와 진로준비기가 진로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비라 할 수 있다.²⁾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준비 단계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³⁾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고교생은 대체로 '진학'이라는 큰 결정의 골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생애전체의 진로계획에 있어 한 단계의 결정으로서 무리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

進路決定에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 직업세계, 환경적 요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⁴⁾ 그래야만 개인의 進路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간에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목적의식없이 합격에만 치중하다 보니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은 選科를 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탈락을 한다거나 휴학을 하고 다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으며 대학과정을 이수했다고 해도 자기 전공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곳에 취직하는 사람, 전공계열에 취직을 했다해도 적응력 및 창조력의 부족으로 한 곳에 오래 버티어 내지 못하는 사람 등 여러 형태를 볼 수 있다.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進路意識에 관한 조사·연구들은 학생들의 進路상황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孫忠基의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약 90%가 학업 및 진학·진로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으며⁵⁾ 최운실의 연구에서도 학교성적 및 대학 입시

2) 崔榮均外 2人, 「進路教育體制 發展 方向 研究」(서울:韓國教育開發院, 研究報告 RR 87-27, 1987), pp. 20-21.

3) 李定根, 「進路指導와 進路相談」(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8), p. 27.

4) 張석민,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도안」(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8), p. 27.

5) 孫忠基·孫炳魯·李星珍, "高等學校 學生의 進路意識", 「行動科學研究」(서울:行動科學研究所, 1982), pp. 23-30.

를 최대의 고민거리로(73.7%) 지적하고 있었다.⁶⁾ 그러나 장차 대학진학을 원하는 고교생에게 희망학과를 기재하도록 해보았더니 이들 중 33.3%가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68.6%는 장래 직업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직업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어떻게 할 지 몰라서'(47.9%)와 '선택할 기회가 충분하므로'(17.8%), 기타(2.9%)를 들었다.⁷⁾ 대학진학이란 장치 진출할 직업이 선택되고 난 뒤에 결정되는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 후에도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리라는 사고방식은 '우선 대학에 들어가 놓고 보자'는 대학진학에 관한 사회의식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 볼 때 자원의 낭비뿐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도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로결정에 있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적절한 적응 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으로 장석민과 김애송은 ①부모의 그릇된 진로관 ②학교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③사회내의 능력보다 학력, 학연에 의한 고용관행 등을 들고 있다.⁸⁾ 결국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진로결정에 관한 한 고등학생의 부적응양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進路指導의 중요성이 거론될 수 있다.

실제 進路指導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가능성을 탐구, 발견하게 하여 이를 발전시킴으로서 자신의 進路를 올바르게 계획 준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선택한 進路에 잘 적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⁹⁾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학생들이 자신의 進路개척을 위해 조기에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

6) 최운실, "오늘의 청소년, 그들의 의식과 태도를 진단한다", 「교육월보」 5월호 (서울: 교육부, 1992.5), pp.64~71.

7) 孫忠基外 2人, 前掲書, pp.6-8.

8) 任斗淳, 「中學校 進路教育 強化 方案 研究」(서울: 韓國教育開發院, RR-92-20, 1992). p.18에서 再引用.

9) 李定根, 前掲書, p.17.

정이다. 進路指導가 학교교육의 핵심이 되어 국민학교때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대책이 不備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부적응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이 큰 역기능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미래의 교육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 적절한 進路意識을 형성하기 위해선 학교에서의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진로지도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학교의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의 進路意識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양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의식 중 대학의 학과선정과 관련한 大學進學意識과 직업선택과 관련한 職業意識의 내용과 수준을 밝혀 보는데 목적이 있다.

B. 研究의 問題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성별, 계열별, 학교소재지별 특성에 따른

1. 고등학교 選校 및 계열선택의 과정과 적용의 정도는 어떠한가?
 - a. 중학교 단계에서의 고등학교 選校과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정도는 어떠한가?
 - b. 고등학교 1학년때 이루어지는 계열선정과정과 계열에 대한 적응정도는 어떠한가?
2. 대학 진학 의식은 어떤 수준인가?
 - a. 대학 교육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어떠한가?
 - b. 희망 계열(학과)의 선정수준과 認知 정도는 어떠한가?
 - c. 계열(학과)선정시 학교, 가정의 진로지도 정도는 어떠한가?
3. 직업 의식은 어떤 수준인가?

a. 장래 희망직업의 선정수준과 認知 정도는 어떠한가?

b. 직업선택 방향의 결정여부는 어떠한가?

C. 用語의 定義

본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進路 (career)

진로란 “개인이 일생동안 하는 일의 총체이다” 진로는 넓은 의미로서 생의 방향 인생의 폭 넓은 삶의 질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전 생애를 의미하고 있다.

2. 職業 (vocation, occupation)

생계 또는 생활유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의 종류 즉 직업생활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며 평생을 이와 더불어 지낸다. 吉亨奭은 career>occupation=vocation>job으로 해석하였는데¹⁰⁾ 이것은 career는 occupation 보다 그 개념이 포괄적으로 occupation이나 vocation은 같은 내용으로 간주된다.

3. 進路 選擇, 決定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making)

개인의 인생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과 동일시함으로써 조직되어지는 과정으로 개인의 최대 만족을 위한 자신의 긍정적인 결정요인과 현실적인 세계와 타협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과 결정의 관계를 보면 양자는 연속적 과정으로서 선택이 결정보다 하위목표가 되며 아울러 선택은 과정적 측면이 강조가 되는 것이며 결정은 결과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10) 吉亨奭, “進路指導 教育과 教育課程”, 「새교육」 11月號 (서울: 大韓教育聯合會, 1981), p. 7.

4. 進路 意識 (career awareness)

개인의 일생동안의 학교와 직업선택을 포함한 생애 진로 전반에 대하여 개인의 부과하는 일체의 지식, 태도, 가치관으로 진로가치에 대한 기준과 진로현실에 대한 인식 및 진로선택 결정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5. 進路 指導 (career guidance)

개인으로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진로를 선택하며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서는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직업진로 지도와 진학진로 지도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6. 進路 發達 (career development)

흔히 직업발달(vocational 혹은 occupational development)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것은 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직업정체성을 구체화하며 직업기회를 배우며 시간제 전일제 환경 또는 여가선용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평생의 과정에 유의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표집대상을 제주도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6개교(시내 3개교 : 시외 3개교)에 제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곤란하다.

2. 설문항목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것이 아니다.

3. 본 연구의 결과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사실로 인정하고 처리하였으므로 모든 결과는 학생들의 반응에 국한된다.

II. 理論的 背景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진로의식 발달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A. 進路 意識 發達

1. 進路意識 發達理論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進路 意識은 신체, 의지, 사회성과 같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성숙하여 진다고 했다.¹¹⁾

Ginzberg는 진로발달에 발달심리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는 직업선택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 과정은 비가역적이라 했다.

따라서 나중의 결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결정의 영향을 받으며 흥미, 능력, 가치관 및 요구 등의 주관적 요소와 현실과의 타협과정을 통하여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타협을 선택의 본질적 요소로 본 Ginzberg는 직업선택 발달 단계를 환상적 선택단계, 시험적 선택단계, 현실단계로 구분했다.

Super는 Ginzberg의 이론의 미흡성을 비판하고 직업선택 및 진로발달에 대한 지식을 분석 종합하여 포괄적인 이론을 수립하였다. 그는 진로발달이란 Ginzberg의 이론과 같이 직업의 선택과 적응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관련된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서 개인의 다면적 가능성, 직업적 능력의 유형, 부모와의 동일시 및 모델의 역할, 진로유형 발달의 지도 가능성, 진로유형의 역동성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

11) 金忠起, 「進路敎育과 進路指導」(서울:培英社, 1986), pp. 47-52.

어야 한다고 하였다.

Super는 그의 이론에서 개인은 심리적 생리적 속성뿐 아니라 의미있는 타인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조건에 의하여 진로발달을 계속해 나간다고 전제하고 결과적으로 직업적 성숙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직업선택과정은 인간의 발달과정 및 단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누구나 이 단계를 거쳐간다고 하였다.

Super는 진로발달 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를 제시하고 각 단계의 독특한 행동특징을 기술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발달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개인의 특성, 능력, 가치관 등이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및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진로 유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진로발달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인간은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II-1〉은Ginzberg와 Super의 진로발달 단계를 Piaget의 인지발달과 종합하여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1〉 연령에 따른 중요인의 발달 단계

연 령(세)	2	4	6	8	10	12	14	16	18	20
학 교 급	유 아 원		국 민 학 교			중 학교	고 등 학 교	대 학 교		
인 지 발 달	감 각 동 작 기	전 조 작 기		구 체 적 조 작 기		형 식 적 조 작 기				
직 업 발 달	성 장 기						탐 색 기			
직 업 선 택	환 상 적 선 택 단 계				시 험 적 선 택 단 계			현 실 적 단 계		

첫째, 인지발달은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 있게 된다. 전조작기의 자기 중심적 사고

에서 탈피 상대편 입장을 살피고 가설을 세우고 차례로 검증할 수 있는 귀납적 사고가 가능하다.

둘째, 진로발달은 탐색단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주어 진로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직업선택 발달 단계는 시험적 선택 단계이다. 진로선택에 직면하여 실제적이고 확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질 흥미 긍정적 자아개념을 성장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進路 意識 發達에 影響을 주는 要因

진로를 최종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해선 분석하는 측면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타난다.¹²⁾

Tolbert는 진로결정요인을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직업명성, 직업흥미, 가족과 가정, 경제, 성격, 신체, 정신, 사회적 장애, 성취등을 들고 있다.

Herr은 일반적요인과 특수요인으로 구분 일반적요인에는 사회계층, 인종, 문화, 의사결정자의 나이, 성을, 특수요인으로는 적성, 지능, 흥미, 직업명성, 직업적 스테레오 타입, 가치, 요구, 자아개념 등을 든다.

한편 Sewell은 진로선택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포부수준(Level of Aspiration)이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포부수준이란 어떤 개인이 어떤 일에 대하여 예상하고 있는 장래의 성취수준을 말하며 고등학교시절에 형성되는 포부수준에는 교육 및 직업에 대한 포부가 있다. Sewell은 이어서 직업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능, 중요한 他者의 영향, 학업성적, 교육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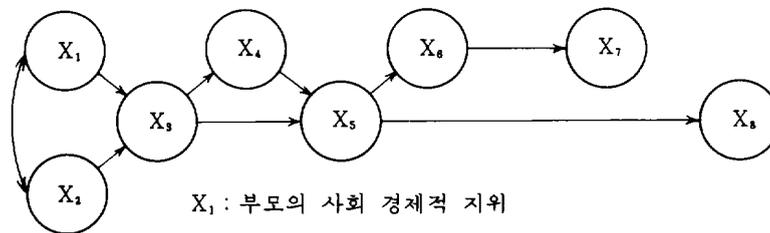
12) 許鐵洙, “高校生の 進路選擇과 決定의 合理的 方案에 關한 研究”, 『學生生活研究』 第8輯,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6. 3), pp. 41~46.

등을 들고 있다.

Hansen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능, 중요한 他者의 영향, 학교성적 등이 교육적, 직업적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Heyns는 계열을, Alexander와 Eckland, Sewell은 성별을 각각 직업포부의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다.

Yuchtman과 Sumual이 교육 및 직업적 포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관련된 요인별로 연결하였는데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진로계획 설정의 관련 요인



- X₁ :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 X₂ : 사회 문화적 특성
- X₃ : 고등학교 유형
- X₄ : 교육연한
- X₅ : 대학입학 자격 소지여부
- X₆ :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 X₇ : 직업 계획
- X₈ : 교육 계획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로선택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상호 연관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姜武燮¹³⁾과 朴英淑이 개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표 II-1>과 같이 정리하였다.

13) 姜武燮·朴英淑, 「學生의 進路決定過程 分析」(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4), p. 34.

〈표 II-1〉 진로결정 요인

구 분	결 정 요 인
개인적인 차원	1. 내재적 요인— 연령, 성, 능력, 인성, 직업적 흥미, 학력, 신체적 조건 등 2. 외재적 요인— 가정 배경, 부모의 직업, 학력,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 경제적 차원	1. 산업구조의 변화 2. 산업기술의 혁신요인 3. 인구증가요인 4. 사회의 직업가치관
교육체제의 차원	1. 학교 배경 2. 교육정책

B. 先行研究의 考察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學校 및 系列 選擇의 實態

자기이해를 통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계열선택 지도사례를 연구한 柳富鉉은 인문계 여고생들의 계열선택 실태를 보면 목적의식 없이 선택한 학생, 자기자신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채 선택한 학생, 가정환경이나 성적에 따라서 부모가 계열을 결정하게 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불안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¹⁴⁾ 비평준화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와 계열선택요인과 적응의 문제를

14) 柳富鉉, “自己理解를 통한 人文系 女高生の 系列選擇指導事例”, 「年次大會 發表論文集」(韓國카운셀러協會 19차 年次大會發表, 1984), p. 14.

검토한 朴在洪은 인문계고교 진학동기로 절반 이상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역시 절반이상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학교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학생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실패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바 그 이유로 '적성에 안 맞아'를 들었다.¹⁵⁾

許鐵洙는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고교계열선택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만족비율은 남, 여는 비슷한 수준, 학년별로는 2-1-3 학년순, 계열별로는 실업계(수산계는 제외한 농업 상업 공업계열)보다 인문계가 높게 나타나, 불만족비율은 여자보다 남자가,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인문계보다 실업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¹⁶⁾

金志安은 성별, 계열별로 학교적응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열선정동기로 인문계가 장래의 전망과 적성을, 실업계는 경제사정과 주위의 권유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을 결정하고 있었다.

② 계열선정의 주체로 주로 본인과 가족을 드나 실업계 여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가족에 의해 계열을 선택하고 있었다.

③ 현재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계열별, 성별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비율이 극히 적었다. 특히 인문계보다 실업계가 그 비율이 높다.¹⁷⁾

2. 大學 進學 意識

대학진학의식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주로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때의 희망학과와 현재의 진학학과 간의 일치 여부에 주목하여 진로선택의 과정과 경향을

15) 朴在洪, "高等學生의 系列選定別 進路意識과 그 進路指導" (慶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8), pp. 44-45.

16) 許鐵洙, 前揭論文, p. 17.

17) 金志安, 進路指導 改善方案 摸索을 爲한 高校生의 進路意識 比較研究"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4), p. 50.

과약함으로써 대학학과에 대한 적응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대학재학생과 고교교사를 대상으로 대학 및 학과선택과정과 진학상담사례를 조사 분석한 朴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교재학시 대학 및 학과선택을 성적에 따라 결정한 결과 대학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② 학과선택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은 능력과 적성이라고 하면서 실제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③ 고등학교에 진학지도를 위한 시설이나 정보자료 등 제반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교사들이 진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진학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⑤ 학과선택지도는 반드시 해야 하나 고등학교에서는 진학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았고 배치되어 있다고 해도 담임교사가 임의로 지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⑥ 담임교사가 학생의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할 때 학생의 의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¹⁸⁾

역시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및 학과 선택 결정경향과 학업적응력과의 관계를 규명한 許鐵洙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① 학과(대학)의 결정시기가 지나치게 늦다.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러서야 학과를 결정하고 있고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등 심리적 특성에 관계없이 점수에 의하여 방향이 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학과의 선택에서 성적과 타인에 의한 영향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③ 현재의 학과와 원래 계획했던 학과간에 불일치하는 학생이 대부분을 이루었

18) 朴琬, “高等學校 學生들의 進路指導에 關한 調査 研究”(慶尙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4), p. 55.

다.

④ 무계획적이고 무의도한 대학(학과)의 선택 결과 현재의 학과에 대한 불만족이 대부분이다.¹⁹⁾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학과)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를 한 朴贊奉도

① 학과지원시 지원학과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다. 절반 이상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잘 모르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② 학과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는 적성보다는 외부모의고사 성적과 그 학과의 장래성에 관련된 요인들이 대부분이다.

③ 학과의 결정시기는 대부분 고교때로 이중 26.1%는 입학원서 교부 접수기간 중에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현재의 학과와 원래 계획했던 학과가 불일치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이유는 '성적(실력)이 모자라서'가 지배적이다.²⁰⁾

3. 職業意識

대학진학시 직업과의 연계성을 어느 정도 認知하고 있는가 하는 職業意識과 관련한 연구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와 직업을 조사하여 집단간의 차이나 과거와의 변화를 규명한다든지 또는 인기도가 높은 학과와 직업을 비교하여 이들간의 일치성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만일 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학과와 선호 직업간에는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선 유사학과, 유관, 대체 직업들의 분류라든지 전공학과와 관련직업에 대한 논리적 추측과 경험적 근거에 의한 분류준거 마련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19) 許鐵洙, "大學 및 學科選擇 決定過程과 學業適應과의 關係", 「學生生活研究」第11集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9. 2), pp. 147-148.

20) 朴贊奉外 1人, 「人文系 高等學校 學生들의 大學(校) 및 學科選擇 行動에 關한 研究」(서울: 中央教育評價院, 1989), pp. 359-365.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한 전공학과-직업간 일치성여부를 규명하는 단순한 평면적 대비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공학과와 직업간의 일치성여부를 물어 본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志安은 고교때의 전공 계열과 희망직업간에는 높은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곧 인문계 남자의 경우에는 사업가-의사-학자의 순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교사의 경우가 가장 많고 그외 의사-간호원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계의 경우에는 학교의 특성에 따른 반응을 보이는데 農高는 절반 이상이 농·목축업에, 工高는 기술자와 사업가가, 商高는 은행원, 회사원, 공무원 등 주로 사무직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²¹⁾

한편 姜始瑛은 고교생의 진로선택경향과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할 목적으로 고교 졸업 후 희망하는 대학진학분야와 사회진출 분야를 조사하였는데 대학진학계열에서 남학생의 40.8%가 공학계열을, 여학생의 38.6%가 사범 및 예능계열을 선택하고 있고, 사회로 진출할 경우 남학생들은 53.2%가 공업기술분야를, 여학생들은 26.9%가 교육분야를 꼽고 있다.²²⁾

職業意識을 다르게 접근하는 측면도 있다. 進路意識 成熟度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進路意識 成熟(Career maturity)이란 '직업생애의 단계에 있어 자신의 행동과 선배들의 직업행동간의 유사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등의 습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職業的 成熟의 결과를 낳는 과정이며, 한 개인의 職業的 成熟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층에 기대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평가된다.²³⁾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으

21) 金志安, 前掲論文, pp. 47-48.

22) 姜始瑛, "高校生の進路選擇決定과 適應과의 關係"(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8), pp. 47-48.

23) 柳炳彦, "進路意識成熟과 內外統制性 및 一般性格檢査 下位變因과의 關係"(公州師範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8), p. 4.

며,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성적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조사한 金南鎔은 도시학생일수록, 상급학교에 올라갈수록,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職業成熟度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²⁴⁾ 성격특성과 進路成熟 수준간의 관계에 주목한 柳炳彦은 능동적이며 장래 생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進路意識 成熟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²⁵⁾

李星珍은 우리나라 학생의 進路成熟 수준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⁶⁾

이론적 배경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 결정은 생애전체의 진로 계획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단계의 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진학과 취업으로 갈라지는 큰 길을 결정하고 각각의 선택된 진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은 중학교 단계에서의 고등학교 선택-대학 진학결정-직업선택결정 등이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므로 이들 과정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일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의 수준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4) 金南鎔, “中·高·大學生의 職業成熟度에 關한 比較研究” (慶尙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6), pp. 41-43.

25) 柳炳彦, 前揭論文, pp. 31-32.

26) 李星珍外, 「韓國 中·高等學生의 進路意識 發達에 關한 研究」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8), p. 34.

Ⅲ. 研究 方法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질문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의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표집대상,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등은 다음과 같다.

A. 標集 對象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이며 시, 읍면지역에서 각각 남학교 1개교, 여학교 1개교, 남여공학 1개교씩 총 6개교를 선정 2학년에서 2개반을 성별, 계열별을 감안하여 표집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대상학교를 방문 설문을 실시하고 전량 회수하였는 바 총 536부 중 취업을 희망한 24매와 답변이 불성실한 8매를 제외한 504매가 실제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Ⅲ-1>과 같다.

<표 Ⅲ -1> 분석대상자의 집단별 분포

성 별		학교 소재지별		계 열 별		계
남	여	시	읍·면	인 문	자 연	
288	216	267	237	241	263	504

B. 測定 道具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에 대한 질문지'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성별, 계열별, 학교소재지별, 진로유형 등 배경질문 4개 문항과 진로의식에 관한 질문 28개 문항을 합하여 총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의식에 관

한 28개 문항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영역별 문항수

영역별	문항수
학교계열 선택과정과 적용 정도	7
대학 진학 의식	15
직업의식	6

C. 資料 處理

1. 제작된 질문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문항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2년 10월 15일 제주시 J고교 2학년 2개반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예비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1992년 11월 16일부터 1992년 11월 21일까지 표집대상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탐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조사 결과 회수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을 마친 뒤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성별, 계열별, 학교소재지별로 각각의 빈도(N)와 %를 구하고 응답자의 배경에 따른 반응차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研究結果 및 解釋

본 연구는 인문계고교생의 진로의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계열 선택의 과정과 적응의 정도, 대학 진학의식, 직업의식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성별, 계열별, 학교소재지별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學校·系列 選擇 過程과 適應 程度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계열을 선택하는 일은 장래의 진학 뿐만 아니라 직업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졸업 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의 계열 선택과정과 학교생활 적응정도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행하는 계열선정과정과 선택한 계열에 대한 적응정도도 분석하였다.

1.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선택 이유

〈표 IV-1〉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선택 이유

						N (%)		
배경별	적성	대학진학	주위권유	기타	계	χ^2	df	유의도
남학생	30 (10.6)	87 (30.7)	74 (26.1)	92 (32.5)	283	2.57	3	N.S
여학생	28 (13.3)	57 (27.0)	48 (22.7)	78 (37.0)	211			
인문계	32 (13.4)	76 (31.9)	54 (22.7)	76 (31.9)	238	3.93	3	N.S
자연계	26 (10.2)	68 (26.6)	68 (26.6)	94 (36.7)	256			

배경별	적성	대학진학	주위권유	기타	계	χ^2	df	유의도
시지역	16 (6.1)	111 (42.4)	42 (16.0)	93 (35.5)	262	64.95	3	P<.01
읍면지역	41 (17.8)	33 (14.3)	80 (34.8)	76 (33.0)	230			
전체	58 (1.7)	144 (29.1)	122 (24.7)	170 (34.4)	494			

<표 IV-1>에서 처럼 현재 재학중인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학교소재지별 반응차를 보면 시지역은 대학진학이 가장 많아 42.4%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35.5%), 주위권유(16.0%), 적성(6.1%)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주위권유가 가장 많아 34.8%이고 다음으로 기타(33.3%), 적성(17.8%), 대학진학(14.3%)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냈다(p<.01). 그러나 성별, 계열별에는 모두 유의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경향은 기타(34.3%), 대학진학(29.1%), 주위권유(24.1%), 적성(11.7%) 순이다.

'기타'의 내용을 보면 시지역은 '추첨에 의해서'(응답자의 48.9%)라고 하고, 읍면지역은 '성적이 안 좋아서'(응답자의 19.2%), 또는 '교통때문에'(11.5%)라고 했다.

결국 기타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인문계교의 진학동기를 시지역은 대학진학에, 읍면지역은 주위권유나 낮은 성적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선택의 주체

〈표 IV-2〉 학교선택의 주체

							N(%)		
배경별	본인	가족	교사	친구 선배	기타	계	χ^2	유의도	df
남학생	126 (44.1)	64 (22.4)	16 (5.6)	10 (3.5)	70 (24.5)	286	17.58	4	P<.01
여학생	122 (56.7)	28 (13.0)	21 (9.8)	10 (4.7)	34 (15.8)	215			
인문계	138 (57.3)	37 (15.4)	13 (5.4)	10 (4.1)	43 (17.8)	241	12.37	4	P<.05
자연계	110 (42.3)	55 (21.2)	24 (9.2)	10 (3.8)	61 (23.5)	260			
시지역	122 (46.4)	34 (12.9)	11 (4.2)	3 (1.1)	93 (35.4)	263	87.86	4	P<.01
읍면지역	125 (53.0)	58 (24.6)	26 (11.0)	17 (7.2)	10 (4.2)	236			
전체	248 (49.5)	92 (18.4)	37 (7.4)	20 (4.0)	104 (20.8)	501			

〈표 IV-2〉에서처럼 학교선택의 주체에 대한 성별 반응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본인(44.1%), 기타(24.5%), 가족(22.4%)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는 본인(56.7%), 기타(15.8%), 가족(13.0%) 순으로 반응을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본인에 더 높게 반응하며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본인외에 기타와 가족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본인(57.3%), 기타(17.8%), 가족(15.4%) 순으로, 자연계가 본인(42.3%), 기타(23.5%), 가족(21.2%) 순으로 반응을 보였는 바 인문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인에 높은 비중을 두는 반면, 자연계는 기타와 가족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 < .05$)

학교소재지별로는 시지역이 본인(46.4%), 기타(35.4%), 가족(15.4%) 순으로, 읍면지역이 본인(53.0%), 가족(24.6%), 교사(11.0%) 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있어 시, 읍면간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1$). 본인을 제외하면 시지역은 기타에 읍면지역은 가족에 높게 반응한다.

전체적으로 본인에 49.5%, 기타 20.8%, 가족 18.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 '추첨(컴퓨터)에 의해서'라고 밝힌 34명(6.8%)은 시지역소재 학생으로 제주시소재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조차도 선발고사의 성적(본인의 능력에 의해 좌우됨) 외에 희망 학교의 선택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느끼고 있어, 국가가 고교평준화를 이유로 학교선택권, 혹은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혹은 학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²⁷⁾

또한 학교(계열)선택과정의 성숙한 조언자인 교사²⁸⁾의 역할이 낮은 것은 문제성이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학교생활의 적응 정도

<표 IV-3>에서처럼 현재 재학중인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성별($P < .05$), 학교소재지별($P < .01$)에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계열별 비교에서는 의미 있는 반응차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에 불과 28.2%가 반응했는데 이중 남학생이 33.1%, 시지역 학생이 34.7%로 22.3%인 여학생과 21.3%인 읍면지역에 비해 다소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그렇다가 56.2%, 불만이다가 15.3%로 과반수 이상이 학교생활에 심한 부적응을 보이거나 부적응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계열 선정의 이유

27) 박부권,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조정의 기본 방향", 「교육개발 제11권, 제2호 (한국교육개발원, 1989), pp.16-25.

28) 제주도교육연구원편, "계열선택, 「진로교육」 제2호(1990.12), pp.108.

〈표 IV-3〉 학교생활의 적응 정도

배경별	N (%)			계	x ²	df	유의도
	만족함	그저그렇다	불만임				
남학생	95 (33.1)	150 (52.3)	42 (14.6)	287	7.05	2	P<.05
여학생	48 (22.3)	132 (61.4)	35 (16.3)	215			
인문계	71 (29.6)	129 (53.8)	40 (16.7)	240	1.20	2	N.S
자연계	72 (27.5)	153 (58.4)	37 (14.1)	262			
시지역	92 (34.7)	140 (52.8)	33 (12.5)	265	12.24	2	P<.01
읍면지역	50 (21.3)	141 (60.0)	44 (18.7)	235			
전체	143 (28.5)	282 (56.2)	77 (15.3)	502			

〈표 IV-4〉 계열 선택의 이유

배경별	N (%)				계	x ²	df	유의도
	적성	대학진학	주위권유	기타				
남학생	97 (33.7)	84 (29.2)	84 (29.2)	23 (8.0)	288	8.79	3	P<.05
여학생	95 (44.2)	64 (29.8)	41 (19.1)	15 (7.0)	215			
인문계	118 (49.2)	61 (25.4)	42 (17.5)	19 (7.9)	240	27.10	3	P<.01
자연계	74 (28.1)	87 (33.1)	83 (31.6)	19 (7.2)	263			
시지역	116 (44.5)	64 (24.2)	60 (22.6)	23 (8.7)	265	14.09	3	P<.01
읍면지역	72 (30.5)	84 (35.6)	65 (27.5)	15 (6.4)	236			
전체	192 (38.2)	148 (29.4)	125 (24.9)	38	503			

〈표 IV-4〉의 계열선택의 이유에 대한 성별 반응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적성(33.7%), 대학진학(29.2%), 주위권유(29.2%) 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있고, 여학생의 경우는 적성(44.2%), 대학진학(29.8%), 주위권유(19.1%) 순으로 반응을 보여 남·학생간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 < .05$).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적성에 반응한 비율이 높고 남학생은 적성, 대학진학, 주위권유의 비중이 비슷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의 경우 적성(49.2%), 대학진학(25.4%), 주위권유(17.5%) 순으로 자연계는 대학진학(33.1%), 주위권유(31.6%), 적성(28.1%) 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계열간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1$)

학교소재지별로 시지역은 적성(44.5%), 대학진학(24.2%), 주위권유(22.6%) 순으로 읍면지역은 대학진학(35.6%), 적성(30.5%), 주위권유(27.5%)의 순으로 반응을 보여 시·읍면지역간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 < .01$)

전체적 경향은 적성(38.2%), 대학진학(29.4%), 주위권유(24.9%), 기타(7.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선택의 이유와 비교하여 볼때 계열선택에서 적성에 높은 반응을 보인 점은 학교선택 과정에 비해 계열선택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율성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하며, 특히 시지역학생이 읍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응한 정도가 높은 것은 고교입학시에 시험을 통한 선발을 한 차례 거침으로써 대학진학이 보다 수월해졌음으로 일차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아 계열선택에는 비교적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

결국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 학교의 경우보다 계열선택의 경우가 더 현실적인 요인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계열 선정의 주체

〈표 IV-5〉의 계열선정의 주체에 대한 계열별 반응차를 보면 인문계는 본인의 자유의사가 7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11.2%), 친구, 선배(9.9%) 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있고, 자연계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75.7%, 가족(7.9%), 친구, 선배(6.1%)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P < .05$). 본인의 반응비율은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다

〈표 IV-5〉 계열 선정의 주체

							N(%)		
배경별	자유 의사	가족	교사	친구 선배	기타	계	x	df	유의도
남학생	219 (76.0)	28 (9.7)	8 (2.8)	25 (8.7)	8 (2.8)	288	6.27	4	N.S
여학생	170 (78.7)	25 (11.6)	9 (4.2)	10 (4.6)	2 (0.9)	216			
인문계	190 (78.8)	27 (11.2)	2 (0.8)	19 (9.9)	3 (1.2)	241	11.09	4	P<.05
자연계	199 (75.7)	26 (7.9)	15 (5.7)	16 (6.1)	7 (2.7)	263			
시지역	222 (83.5)	23 (8.6)	4 (1.5)	10 (3.8)	7 (2.6)	266	19.41	4	P<.01
읍면지역	166 (70.3)	30 (12.7)	13 (5.5)	24 (10.2)	3 (1.3)	236			
전체	389 (77.2)	53 (10.5)	17 (3.4)	35 (6.9)	10 (2.0)	504			

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소재지별로 시지역은 본인의 자유 의사가 83.5%로 가장 많고 그의 가족(8.6%), 친구선배(3.8%)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읍면지역은 자유 의사(70.3%), 가족(12.7%), 친구·선배(10.2%) 순으로 나타났다. (P<.01) 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선배의 도움을 얻어 계열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비교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전체적 경향은 〈표 IV-2〉에서와 같이 본인이 77.2%로 절대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 외 가족(10.5%), 친구·선배(6.9%), 교사(3.4%), 기타(2.0%)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선정의 경우 학교선택의 주체에서보다 본인에 반응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결국 중학시절의 고교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타의적인 학교선택때와는 달리 2학년

진급시에는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한 후 자유의사에 따라 계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6. 선택 계열에 대한 적응 정도

〈표 IV-6〉 선택 계열에 대한 적응 정도

					N (%)		
배경별	만족함	그저그렇다	불만임	계	χ^2	df	유의도
남학생	132 (45.8)	125 (43.4)	31 (10.8)	288	3.80	2	N.S
여학생	99 (45.8)	104 (48.1)	13 (6.0)	216			
인문계	118 (49.0)	106 (44.0)	17 (7.1)	241	2.69	2	N.S
자연계	113 (43.0)	123 (46.8)	27 (10.3)	263			
시지역	142 (53.4)	106 (39.8)	18 (6.8)	266	13.51	2	P<.01
읍면지역	88 (37.3)	122 (51.7)	26 (11.0)	236			
전체	231 (45.8)	229 (45.4)	44 (8.7)	504			

〈표 IV-6〉의 전체적 경향은 45.8%가 만족한다고 학교생활의 적응 정도보다 높다. 학교소재지별에서만 유의있는 반응차를 보여주는데(P<.01) 만족한다는 반응에 시지역은 53.4%, 읍면지역은 37.3%로, 선택계열에 대한 적응정도는 읍면지역보다 시지역이 높다.

7. 선택계열에 대한 불만 요인

〈표 IV-7〉 선택 계열에 대한 불만 요인

N (%)

배경별	기초실력부족	적성에 안맞아	원하는 선택과목이 없음	학습분위기가 나빠	기타	계	χ^2	df	유의도
남 학생	62 (43.7)	30 (21.1)	2 (1.4)	23 (16.2)	25 (17.6)	142	5.74	4	N.S
여 학생	36 (47.4)	14 (18.4)	4 (5.3)	15 (19.7)	76 (9.2)	76			
인문계	38 (40.9)	22 (23.7)	3 (3.2)	17 (18.3)	13 (14.0)	93	1.83	4	N.S
자연계	60 (48.0)	22 (17.6)	3 (2.4)	21 (16.8)	19 (15.2)	125			
시지역	48 (42.9)	26 (23.2)	3 (2.7)	15 (13.4)	20 (17.9)	112	4.93	4	N.S
읍면지역	49 (46.7)	18 (17.1)	3 (2.9)	23 (21.9)	12 (11.4)	105			
전체	98 (45.0)	44 (20.2)	6 (2.8)	38 (17.4)	32 (14.7)	218			

선택계열에 대하여 부적응자, 즉 ‘그저그렇다’와 ‘불만이다’라고 답한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초실력부족에 45.0%, 적성에 안 맞아가 20.2%, 비학습분위기에 17.4%, 기타 14.7%, 원하는 선택과목이 아님 2.8% 순으로 반응하고 있다.

변인별 비교에서는 의미있는 반응차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다만 ‘기초실력부족’에는 여학생일수록, 자연계일수록, 읍면지역일수록 높게 반응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에는 남학생일수록, 인문계일수록, 시지역일수록 높게 반응하고 있다.

B. 大學 進學 意識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에 관한 일반적 태도,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계열

(학과)의 인지정도, 그리고 정보획득 및 학교·가정의 진로지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大學進學에 關한 一般의 態度

a. 대학 진학 목적

〈표 IV-8〉 대학 진학 목적

N(%)

배경별	지식 교양	좋은 직업	사회적 안정	일반적 현상	기타	계	x ²	df	유의도
남학생	37 (13.5)	94 (34.2)	60 (21.8)	66 (24.0)	18 (6.5)	275	4.02	4	N.S
여학생	38 (17.9)	66 (31.1)	54 (25.5)	40 (18.9)	14 (6.6)	212			
인문계	31 (12.9)	78 (32.5)	64 (26.7)	54 (22.5)	13 (5.4)	240	5.14	4	N.S
자연계	44 (17.8)	82 (33.2)	50 (20.2)	52 (21.1)	19 (7.7)	247			
시지역	40 (15.3)	88 (33.6)	54 (20.6)	64 (24.4)	16 (6.1)	262	4.16	4	N.S
읍면지역	35 (15.7)	70 (31.4)	60 (26.9)	42 (18.8)	16 (7.2)	223			
전체	75 (15.4)	160 (32.9)	114 (23.4)	106 (21.7)	32 (6.6)	487			

〈표 IV-8〉에서처럼 대학진학목적에 대한 전체적 반응의 경향을 보면 '좋은 직업을 갖기에 유리하다'가 32.9%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 다음으로 '남들이 가니까'가 21.7%, '지식과 교양'이 15.4%, '기타'가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비교에서는 의미있는 반응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교교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가치부여 양상을 알아보고자, 강무섭의 학력의 가치와

기능모형을 도입하였다.²⁹⁾ 즉 학력의 목적적 가치와 기능으로 '지식과 교양을', 도구적·선발적 가치와 기능으로 '구직에 유리하다'거나 승진이나 급여에 유리하니까'를, 상징적 가치와 기능으로 '사회적 인정' 및 '일반적 현상(남들이 가니까)'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인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에 대한 가치부여 양상은 상징적 가치가 가장 우세하고 다음으로 선발·도구적 가치-목적적 가치의 순으로 나타난다.

80년대 이후 대학교육에 대한 가치부여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李宗宰, 裴天雄, 金慶甲의 연구들과 비교하였다.³⁰⁾ <표 IV-9>와 같다.

<표 IV-9> 대학 교육의 가치부여에 대한 변화 추이

<p>1위 : 전문지식, 교양습득 - 61.3% (목적적 가치) 2위 : 구직에 유리 - 23.9% (선발적 가치) 3위 : 급여 승진 결혼에 유리 - 11.1% (도구적 가치) 4위 : 기타 - 1.9% 5위 : 남이 가니까 - 1.8% (상징적 가치)</p>	李宗宰 (1981)
<p>1위 : 구직에 유리 - 40.0% (선발적 가치) 2위 : 지식 교양 확대 - 38.1% (목적적 가치) 3위 : 일반적 현상 - 15.1% (상징적 가치) 4위 : 결혼에 영향 - 6.8% (도구적 가치)</p>	裴天雄 (1986)
<p>1위 : 구직에 영향 - 50.2% (선발적 가치) 2위 : 지식 및 교양 확대 - 22.8% (목적적 가치) 3위 : 일반적 현상 - 21.7% (상징적 가치) 4위 : 배우자 결정에 영향 - 2.8% (도구적 가치)</p>	金慶甲 (1987)

29) 강무섭, "입시교육위주의 시각", 『교육개발』 제13권 제2호 (한국교육개발원, 191.4), pp.26-32.

30) 李宗宰, 『韓國人의 教育觀 調査』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1), pp.125-127.

응답 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李宗宰의 연구에서 가장 우세하였던 목적적 가치가 점차 퇴색하여(당초 61.3%에서 38.2%로 다시 22.8%)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상징적 가치는 고작 1.8%였던 것이 꾸준히 우세하여(15.1%로 다시 21.7%로) 본 연구에서는 45.1%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는³¹⁾ 꾸준히 증가해 가는 추세다. 즉 이들을 합하여 李宗宰의 연구에서는 35%, 裴天雄은 46.8%로 가장 높고, 역시 金慶甲의 연구에서도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32.9%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논의대로라면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의 목적적 가치가 퇴조하고 수단적 도구적 선발적 가치가 점차 확산되어가는 추세라 보아지며, 후발적 가치들 중 선발적 도구적 가치에 대한 비중이 상징적 가치에로 옮겨짐으로써 고교생들은 '대학을 인생살이에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관문 내지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b. 대학 진학시 고려할 요인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학문적 흥미와 적성이 40.2%, 입학가능성이 31.9%, 장래취업 전망이 25.9%, 기타 1.6%, 인기학과 0.4%순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흥미와 적성에 비중을 두어 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진로지도의 입장에서 일단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나 30%이상이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일단 대학은 붙고 보자'식의 우리 사회의 맹목적인 학력 우

裴天雄, 「韓國人の 教育觀 分析」(서울:韓國教育開發院, 1986), pp. 156-159.

金慶甲外 2人, 「教育에 關한 國民意識 調査」(서울:韓國教育開發院, 2987), pp. 89-91.

31) 李宗宰와 金慶甲은 이들을 경제적 가치(동기)로 분류하고, 상징적·목적적 가치는 비경제적 가치(동기)로 분류하고 있다. (李宗宰, 上揭書, p. 125; 金慶甲, 上揭書, p. 90)

〈표 IV-10〉 대학 진학시 고려 요인

N (%)

배경별	학문적 흥미 적성	장래취 업전망	입 학 가능성	인 기 학 과	기 타	계	χ^2	df	유의도
남 학생	109 (37.8)	90 (31.3)	82 (28.5)	2 (0.7)	5 (1.7)	288	12.46	4	P<.05
여 학생	93 (43.5)	40 (18.7)	78 (36.4)	0 (0.0)	3 (1.4)	214			
인 문 계	99 (41.4)	53 (22.2)	83 (34.7)	2 (0.8)	2 (0.8)	239	7.60	4	N.S
자 연 계	103 (39.2)	77 (29.3)	77 (29.3)	0 (0.0)	6 (2.3)	263			
시 지 역	129 (48.5)	72 (27.1)	61 (22.9)	0 (0.0)	4 (1.5)	266	27.00	4	P<.01
읍면지역	72 (30.8)	57 (24.4)	99 (42.3)	2 (0.9)	4 (1.7)	234			
전 체	202 (40.2)	130 (25.9)	160 (31.9)	2 (0.4)	8 (1.6)	502	10		

월주의 풍조를 청소년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 여겨진다.

대학진학시 고려요인에 대한 성별반응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문적 흥미와 적성이 3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래취업 전망(31.3%), 입학가능성(28.5%)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학문적 흥미와 적성에 43.5%, 입학가능성(36.4%) 장래취업 전망(18.7%) 순으로 남녀간에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p<.05)

학교소재지별 반응 차이를 보면 시지역은 학문적 흥미와 적성(48.5%), 취업전망(27.1%), 입학가능성(22.9%) 순으로, 읍면지역은 입학가능성(42.3%), 학문적 흥미와 적성(30.8%), 취업전망(24.4%) 순으로 반응을 보여 시·읍면간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01)

c. 대학 진학의 의지

〈표 IV-11〉 대학 진학 의지

N(%)

배경별	재수	상황에 따라 재수	진학 포기	계	χ^2	df	유의도
남학생	68 (23.7)	154 (53.7)	65 (22.6)	287	2.34	2	N.S
여학생	42 (19.4)	114 (52.8)	60 (27.8)	216			
인문계	59 (24.5)	119 (49.4)	63 (26.1)	241	3.08	2	N.S
자연계	51 (19.5)	149 (56.9)	62 (23.7)	262			
시지역	76 (28.6)	143 (53.8)	47 (17.7)	266	24.18	2	P<.01
읍면지역	33 (14.0)	124 (52.8)	78 (33.2)	235			
전체	110 (21.9)	268 (53.3)	125 (24.9)	503			

대학진학 동기와 관련하여 ‘대학진학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 대학 진학의지를 물어 보았다. 분석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진학포기자 24.9%를 제외한 78.2%가 재수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재수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학교소재지별로 시지역이 재수와 재수 가능성을 포함하여 82.3%, 읍면지역이 69.8%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p<.01), 시지역일수록 대학진학 의지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성별, 계열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d. 일류 대학 선호의식

〈표 IV-12〉 일류 대학 선호의식

배경별	N(%)					계	x ²	df	유의도
	실력	동창관계	취직	사회적 인정	기타				
남학생	23 (8.1)	11 (3.9)	63 (22.1)	181 (63.5)	7 (2.5)	285	9.44	4	N.S
여학생	26 (12.1)	1 (0.5)	50 (23.4)	128 (59.8)	9 (4.2)				
인문계	18 (7.6)	8 (3.4)	50 (21.0)	154 (64.7)	8 (3.4)	238	5.23	4	N.S
자연계	31 (11.9)	4 (1.5)	63 (24.1)	155 (59.4)	8 (3.1)				
시지역	33 (12.5)	9 (3.4)	62 (23.4)	150 (56.6)	11 (4.2)	265	10.23	4	P<.05
읍면지역	16 (6.9)	3 (1.3)	51 (22.0)	157 (67.7)	5 (2.2)				
전체	49 (9.8)	12 (2.4)	113 (22.6)	309 (61.9)	16 (3.2)	499			

〈표 IV-12〉에서처럼 일류대학을 졸업해 얻은 혜택에 대한 학교소재지 반응의 차이를 보면 시지역은 사회적 인정이 56.6%로 가장 많고, 그의 취직(23.4%), 실력(12.5%)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읍면지역의 경우는 사회적 인정이 6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취직(22.0%), 실력(2.05)의 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있다. (p<.05) 사회적 인정의 비중은 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이 높다.

성별, 계열별 비교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 경향을 보면 사회적 인정이 6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취직(22.1%), 실력(8.1%), 동창관계(3.9%), 기타(2.5%)순이다.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인정의 표식이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대학을 나온 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일류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적 위세를 할 수

있다는 일반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e.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의식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의식은 '누가 대학에 가야 하는가?'와 '누가 대학에 가고 있는가?'의 두 문항으로 알아보았다. 이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의 꺾리는 입시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대학에 가고 있는 유형에 대한 의식

〈표 IV-13〉 대학에 가고 있는 유형에 대한 인식

N(%)

배경별	적성 포부	경제적 배경	인간성	시험 성적	기타	계	χ^2	df	유의도
남학생	20 (7.1)	22 (7.8)	4 (1.4)	234 (83.0)	2 (0.7)	282	3.97	4	N.S
여학생	18 (8.4)	27 (12.6)	2 (0.9)	165 (77.1)	2 (0.9)	214			
인문계	21 (8.8)	31 (13.0)	3 (1.3)	182 (76.2)	2 (0.8)	239	6.30	4	N.S
자연계	17 (6.6)	18 (7.0)	3 (1.2)	217 (84.0)	2 (0.8)	257			
시지역	4 (1.5)	17 (6.4)	3 (1.1)	240 (90.2)	2 (0.8)	266	40.57	4	P<.01
읍면지역	33 (14.5)	31 (13.6)	3 (1.3)	159 (69.7)	2 (0.9)	228			
전체	38 (7.7)	49 (9.9)	6 (1.1)	399 (80.4)	4 (0.8)	496			

〈표 IV-13〉에서처럼 대학에 가고 있는 유형의식에 대한 학교소재지별 반응의 차이를 보면 시지역이 시험성적에 90.2%로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외 경제적 배경(6.4%), 적성과 포부(1.5%), 인간성(1.1%)순으로 반응을 보여 시험성적을 제외하고는 시·읍면간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p<.01) 시지역이 시험성적에 높은

비중을 두는 반면 읍면 지역은 적성과 포부 및 경제적 배경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별 계열별 비교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대학에 가야하는 유형에 대한 인식

〈표 IV-14〉 대학에 가야하는 유형에 대한 인식

N(%)

배 경 별	적 성 포 부	경 제 적 배 경	인 간 성	시 험 성 적	기 타	계	x ²	df	유 의 도
남 학 생	220 (79.1)	3 (1.1)	34 (12.2)	15 (5.4)	6 (2.2)	278	13.36	4	P<.01
여 학 생	187 (87.8)	2 (0.9)	7 (3.3)	10 (4.7)	7 (3.3)	213			
인 문 계	199 (85.0)	1 (0.4)	13 (5.6)	16 (6.9)	5 (2.1)	234	9.08	4	N.S
자 연 계	208 (80.9)	4 (1.6)	28 (10.9)	9 (3.5)	8 (3.1)	257			
시 지 역	227 (86.3)	2 (0.8)	21 (3.0)	7 (2.7)	6 (2.3)	263	8.14	4	N.S
읍 면 지 역	179 (79.2)	3 (1.3)	19 (8.4)	18 (8.0)	7 (3.1)	226			
전 체	407 (82.9)	5 (1.0)	41 (8.4)	25 (5.1)	13 (2.6)	491			

〈표 IV-14〉의 대학에 가야하는 유형인식에 대한 성별 반응의 차이는 남학생이 적성과 포부에 79.1%, 인간성에 12.2%, 시험성적에 5.4%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학생은 적성과 포부(87.8%), 시험성적(4.7%), 인간성과 기타에 각각 3.3.%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남·여 학생간 적성과 포부를 제외하고는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p<.01수준). 적성과 포부의 비중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계열별, 학교소재지별 비교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적성과 소질에 대한 반응이 82.9%로 절대적이며 다음으로 인간성이 8.4%, 시험성적이 5.1%순으로 나타났다.

3)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평가 의식

대학 입학 제도에 대한 평가의식은 대학에 가고 있는 유형에 대한 인식과 대학에 가야하는 유형에 대한 인식의 일치 정도로 알아 보았다. 즉 두가지 인식이 일치할수록 현재의 입시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입시 제도의 평가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평가 의식

							N(%)
가고 있는 유형	가야 하는 유형	적 성과 포 부	경 제 적 배 경	인 간 성	시 험 성 적	기 타	계
적성과 포부		20 (4.1) ㉠	5 (1.0)	3 (0.6)	7 (1.4)	3 (0.6)	38
경제적 배경		40 (8.2)	0 (0.0) ㉠	4 (0.8)	5 (1.0)	0 (0.0)	49
인 간 성		3 (0.6)	0 (0.0)	2 (0.4) ㉠	1 (0.2)	0 (0.0)	6
시 험 성 적		343 (69.9)	0 (0.0)	31 (6.4)	12 (2.5) ㉠	9 (1.9)	395
기 타		1 (0.2)	0 (0.0)	0 (0.0)	0 (0.0)	1 (0.2) ㉠	3
계		407	5	41	25	13	491

(㉠)는 입시제도의 타당성을 긍정하는 반응임. 나머지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임)

대학을 가야 하는 유형과 가고 있는 유형이 일치한다고 보는 반응(표의 ㉠부분에

해당)은 7.1%에 불과하고 나머지 92.8%가 불일치한다고 본다. 즉 대다수의 학생이 현재의 입시제도를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 69.9%가 '학문적 적성과 포부가 있는 학생'이 대학에 가야 하는데 현실은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이 가고 있다고 보고 8.2%는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이 가고 있다고 본다.

결국 대다수의 학생이 이상적으로는 적성과 포부가 있는 학생이 진학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시험성적이 좋고 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 지원 계열(학과)선택 정도

a. 대학 및 학과의 결정의 우선 순위

〈표 IV-16〉 대학 및 학과의 결정의 우선 순위

						N(%)
배 경 별	대 학	학 과	계	χ^2	df	유 의 도
남 학 생	74 (25.9)	212 (74.1)	286	9.58	1	P<.01
	30 (14.1)	183 (85.9)	213			
인 문 계	51 (21.4)	187 (78.6)	238	0.03	1	N.S
	53 (20.3)	208 (79.7)	261			
시 지 역	65 (24.4)	201 (75.6)	266	3.82	1	N.S
	39 (16.9)	192 (83.1)	231			
전 체	104 (20.8)	395 (79.2)	499			

〈표 IV-16〉은 장차 대학 진학시 대학과 학과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인가를 물어 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과의 선택에 월등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 (74.1%), 이런 결과는 대학교육의 전문성 확보라는 면에서 보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어느 학과든지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되던 과거와는 달리 전공에 따라 취업여부가 좌우되어 전공학과의 비중이 커진 현실의 반영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아직 결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로 응답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과 학과의 우선순위에 대한 변인별 비교에서는 성별에서만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1) 곧 학과의 중요성에 반응한 비율은 남학생이 74.1%, 여학생이 85.9%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과의 선택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진학희망 계열

〈표 IV-17〉 진학희망 계열

		N(%)							
배경별	어문학	인문	법정	경상	사회	이학	공학	농학	수해양
남학생	16 (5.6)	29 (7.4)	21 (7.4)	34 (11.9)	15 (5.3)	7 (6.5)	110 (38.6)	8 (2.8)	5 (1.8)
여학생	31 (14.4)	15 (6.9)	8 (3.7)	14 (6.5)	8 (3.7)	9 (4.2)	27 (12.5)	1 (0.5)	0 (0.0)
인문계	41 (17.0)	32 (13.3)	27 (11.2)	43 (17.8)	21 (8.7)	0 (0.0)	4 (1.7)	2 (0.8)	0 (0.0)
자연계	6 (2.3)	4 (1.5)	2 (0.8)	5 (1.9)	2 (1.8)	16 (6.2)	133 (51.2)	7 (2.7)	5 (1.9)
시지역	23 (8.6)	14 (5.3)	18 (5.8)	32 (12.0)	14 (5.3)	11 (4.1)	82 (31.8)	1 (0.4)	0 (0.0)
읍면지역	24 (10.3)	21 (9.0)	11 (4.7)	16 (5.9)	9 (3.9)	5 (2.1)	55 (23.6)	8 (3.4)	5 (2.1)
전체	47 (9.3)	36 (7.1)	29 (5.8)	48 (9.5)	23 (4.6)	16 (3.2)	137 (27.2)	9 (1.8)	5 (1.5)

배경별	가정	예·체능	교육	의·약학	계	x ²	df	유의도
남학생	0 (0.0)	22 (7.7)	14 (4.9)	12 (4.2)	285	105.6	12	<.01
여학생	16 (7.4)	27 (12.5)	34 (15.7)	26 (12.0)	216			
인문계	7 (2.9)	37 (15.4)	26 (10.8)	1 (0.4)	241	307.6	12	<.01
자연계	9 (3.5)	12 (4.6)	22 (8.5)	37 (14.2)	260			
시지역	3 (1.1)	22 (8.3)	21 (7.9)	25 (9.4)	266	37.6	12	P<.01
읍면지역	13 (5.6)	27 (11.6)	27 (11.6)	12 (5.2)	233			
전체	16 (3.2)	49 (9.7)	48 (9.5)	38 (7.5)	501			

〈표 IV-17〉에서 처럼 진학희망 계열은 모든 변인에서 의미있는 반응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p<01)에서 남학생은 공학(38.6%), 경상(11.9%), 예체능(7.7%)순으로, 여학생은 교육(15.7%), 어문학(14.4%), 공학(2.5%), 의약학(12.0%), 가정(7.4%)순으로 반응했다.

선호 계열의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하여 鄭榮九³²⁾와 姜始瑛³³⁾의 연구와 비교해 본다면 남학생의 경우 과거 인기계열이던 인문계열의 비중이 훨씬 감소하고(21.6%-7.4%-4.0%) 반면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운 인기계열로 등장한 공학계열에 대한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18.0%-38.4%-40.8%) 그의 경상, 법정 계열등 이른바 남학생 선호 계열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높다.

여학생 또한 공학계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여학생학과'로 인식되어온 교육, 의약

32) 鄭榮九, "人文系 高校生の 進路指導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請求論文, 1984), pp. 85-86.

33) 姜始瑛, 前掲論文, p. 29.

학, 가정 계열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鄭榮九의 연구에서처럼 그 구분이 확연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여자학과'인 사범계열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30.7%-19.3%-15.7%), 대신 '남자학과'로 분류되온 공학계열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였다. (5.0%-0.0%-12.5%) 결국 남녀간에 선호 계열의 분야나 순위가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계열별 ($p < .01$)로 인문계는 경상(17.8%), 어문학(17.0%), 예체능(12.5%), 인문(13.3%), 법정(11.2%), 교육(10.8%), 사회(8.7%) 순이며, 자연계는 공학(51.2%), 의약학(14.2%), 교육(8.6%), 이학(6.2%), 예체능(4.6%), 가정(3.5%), 농학(2.7%), 수해양(1.9%) 순으로 인문계열은 희망계열이 전학과에 고루 분포하나 자연계는 단연 공학계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계열과 무관한 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인문계가 14명 (14/241 : 5.8%), 자연계가 19명 (19/260 : 7.3%)으로 나타나 진학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소재지별 ($p < .01$) 별로 시지역이 공학(30.8%) -경상(12.0%) -의약학(9.4%) -어문학(8.6%) -예체능(8.3%) 순이고 읍면지역은 공학(23.6%) -예체능(11.6%) -교육(11.6%) -어문학(10.3%) -인문(9.0%) 순으로 나타났다.

c. 희망 계열(학과)의 인지 정도

계열(학과) 선택시 그 계열(학과)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지를 물었다.

<표 IV-18>에서처럼 희망 계열의 인지 정도에 대한 변인별 비교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 경향을 보면 그저그렇다(52.4%), 잘모른다(41.1%), 잘 알고 있다(6.2%)로 전반적으로 희망학과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희망 계열(학과)에 대한 낮은 認知度를 보여주는 예로 前項에서 희망학과를 기재토록 하였는데 학과를 기재하지 않은 학생이 28.8%(145/504)나 되었다. 또 희망학과로 언급된 학과수는 81개 학과에 불과하다. (실재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수는 400

〈표 IV-18〉 희망 계열(학과)의 인지 정도

배경별	N(%)			계	x ²	df	유의도
	잘알고있음	보통임	잘 모름				
남 학생	17 (5.9)	151 (52.0)	119 (41.5)	287	0.07	2	N.S
여 학생	14 (6.5)	113 (52.3)	89 (41.2)	216			
인문계	17 (7.1)	131 (54.6)	92 (38.3)	240	2.03	2	N.S
자연계	14 (5.3)	133 (50.6)	116 (44.1)	263			
시지역	19 (7.2)	145 (54.7)	101 (38.1)	265	3.08	2	N.S
읍면지역	12 (5.1)	117 (49.6)	107 (45.3)	236			
전체	31 (6.2)	264 (52.5)	208 (41.4)	503			

여객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대체로 일치해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학에 어떤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지, 무엇을 배우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3. 계열(학과)에 대한 정보획득 및 진로지도 정도

a. 진학 결정 주체

〈표 IV-19〉에서 처럼 진학결정 주체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본인이라고 응답하였고 (72.3%), 그외 가족(14.2%), 교사(8.6%), 친구선배(4.0%), 기타의 순이다.

진학결정 주체에 대한 학교소재지별 반응 차이를 보면 시지역이 본인에 78.9%로

〈표 IV-19〉 진학 결정 주체

							N(%)		
배경별	본인	가족	교사	친구 선배	기타	계	χ^2	df	유의도
남학생	202 (70.4)	43 (15.0)	26 (9.1)	13 (4.5)	3 (1.0)	287	1.32	4	N.S
여학생	160 (74.8)	28 (13.1)	17 (7.9)	7 (3.3)	2 (0.9)	214			
인문계	176 (73.3)	34 (14.2)	18 (7.5)	10 (4.2)	2 (0.8)	240	0.86	4	N.S
자연계	186 (71.4)	37 (14.2)	25 (9.5)	10 (3.8)	3 (1.1)	260			
시지역	209 (78.9)	30 (11.3)	17 (6.4)	5 (1.9)	4 (1.5)	265	17.25	4	P<.01
읍면지역	152 (65.0)	40 (17.1)	26 (11.1)	15 (6.4)	1 (0.4)	234			
전체	362 (72.3)	71 (14.2)	43 (8.6)	20 (4.0)	5 (1.0)	501			

가장 많고 그의 가족(11.3%), 교사(6.4%) 순으로, 읍면지역이 본인(65.0%), 가족(17.1%), 교사(11.1%)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p < .01$)

읍면 공히 본인자신에 높게 반응하나 특히 시지역이 높고 가족이나 교사는 읍면지역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b. 각종 심리 검사의 실시 및 도움 정도

현재 학교에서 진로지도로 활용되는 심리검사로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학업성취도 검사가 있다. 심리검사가 진로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심리검사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통하여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활용되어지기 때문이다.

학교의 진로지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여부와 그것이 진로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 각종 검사의 실시 및 도움정도

		N (%)				
검사명	항 목	도움 됨	그저 그렇다	도움 안됨	실시 안함	계
	지능 검사		30 (6.0)	190 (38.3)	121 (24.4)	155 (31.3)
적성 검사		122 (25.2)	223 (46.1)	132 (29.3)	7 (1.4)	484
흥미 검사		20 (4.6)	35 (8.0)	7 (1.4)	354 (80.8)	438
성격 검사		49 (11.6)	164 (39.0)	112 (26.6)	96 (22.8)	421

먼저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여부를 보면 흥미검사 80.8%, 지능검사 31.3%, 성격 검사 22.8%, 적성검사 1.4%가 각각 '실시안함'에 반응하고 있는 바, 대체로 흥미검사를 제외한 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연구자가 확인한 바로도 흥미검사는 조사대상 6개교중 2개교가, 지능검사는 4개교가, 성격검사는 5개교가, 적성검사는 全校가 실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사가 실제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적성검사만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25.2%로 대체로 우세하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거나 도움이 안되었다는 반응이 우세하였다. 결국 각종 표준화검사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실제 진로지도 자료로서의 활용정도는 지극히 낮다.

c. 진학과 관련된 고민

〈표 IV-21〉 진학과 관련된 고민

		N(%)						
배경별	학업성적	취업	가정문제	기타	계	χ^2	df	유의도
남학생	230 (79.9)	37 (12.8)	13 (4.5)	8 (2.8)	288	4.86	3	N.S
	186 (86.1)	15 (6.9)	10 (4.6)	5 (2.3)				
여학생	198 (82.2)	30 (12.4)	8 (3.3)	5 (2.1)	241	4.06	3	N.S
	218 (82.9)	22 (8.4)	15 (5.7)	8 (3.0)				
인문계	236 (88.7)	13 (4.9)	8 (3.0)	9 (3.4)	266	22.62	3	P<.01
	179 (75.8)	38 (16.1)	15 (6.4)	4 (1.7)				
자연계	230 (79.9)	37 (12.8)	13 (4.5)	8 (2.8)	288			

〈표 IV-21〉에서처럼 진학과 관련된 인문계 고등학생의 가장 큰 고민으로 학업성적(82.5%)을 든다. 그 다음으로 취업(10.3%), 가정문제(4.6%), 기타(2.6%)순이다.

학업성적은 진학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나 취업과는 상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업 성적우수=대학 진학=취업 보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할수록 명문대학 인기학과에 진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직장에 취업이 보장된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별도의 준비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대학 진학과 취업은 단절된 것이 아닌 일련의 지속적 과정임을看過하고 있다.

변인별로는 학교소재지에서 의미있는 반응차를 보여주고 있다. ($p < .01$)
 곧 시지역의 경우는 학업성적에 88.7%, 취업 4.9%, 기타 3.4%, 가정문제 3.0%순으로 반응하고 있고, 읍면지역의 경우는 학업성적에 75.8%, 취업에 16.1%, 가정문제 6.4%, 기타 1.7%로 학업에 대한 비중은 시지역일수록 높고, 취업에 대한 비중은 읍면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d. 교사의 진로지도 정도 및 도움 정도

〈표 IV-22〉 교사의 진로지도 정도 및 도움 정도

배경별	N (%)				계	x ²	df	유의도
	많은 도움됨	조금 도움됨	도움 없음	받아본적 없음				
남 학생	59 (20.6)	113 (39.4)	53 (18.5)	62 (21.6)	287	31.83	3	P<.01
여 학생	16 (7.4)	71 (33.0)	80 (37.2)	48 (22.3)	215			
인문계	36 (15.0)	75 (31.3)	68 (28.3)	61 (25.4)	240	6.83	3	N.S
자연계	39 (14.9)	109 (41.6)	65 (24.8)	49 (18.7)	262			
시 지역	45 (16.9)	99 (37.2)	62 (23.3)	60 (22.6)	266	4.83	3	N.S
읍면 지역	29 (12.4)	84 (35.9)	71 (30.3)	50 (21.4)	234			
전체	75 (14.9)	184 (36.7)	133 (26.5)	110 (21.9)	502			

교사의 진로지도가 학생의 진로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표 IV-22〉에서처럼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우세하다(51.4%)
 진로결정의 주체에서 교사의 비중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진로지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일견 학교진로지도의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진로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21.9%나 된다. 일선 교사의 진로지도가 상급학교 진학지도에 그쳐 '진학을 원치 않거나 진학경쟁에서 탈락한' 비진학자들에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³⁴⁾ 대학진학이 가능한 '소수'에게는 교사의 진로지도가 대단히 유용하나 그렇지 못한 '다수'에게는 교사의 진로지도를 받아 볼 기회가 없게 되거나 있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게 된다.³⁵⁾

변인별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p < .01$)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은 남학생이 60.0%, 여학생이 40.4%,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의 진로지도에 높게 반응하고 있다.

e. 부모와의 진로문제 대화 정도

〈표 IV-23〉에서처럼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부모와 진로 문제를 상의하며 변인별로는 학교 소재지에서 의미있는 반응차를 보이고 있다.

부모와 상의한다는 반응은 시지역이 84.2%, 읍면지역이 75.3%로 시지역일수록 부모와 자주 대화한다.

f. 부모와의 진로문제 대화도움 정도



34) 진학의사가 없는 비진학자는 '자발적인 비진학자 집단'으로, 진학의사는 있었으나 진학경쟁과정에서 낙오되어 할 수 없이 밀려난 비진학자는 '타율적인 비진학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李載昌, 「高卒 非進學者의 進路實態 調查研究」, 研究報告 RR 91-4,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91), pp. 24-25)

35) 문교통계는 89-92년에 걸쳐 해마다 인문계 고교생의 진학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89년-50.0%, 90년-47.2%, 91년-42.3%, 92년-34.0%(대학진학자수/당해년도 졸업자수), 여기서 소수란 92년에 대학에 진학한 34.0%, 다수란 비진학한 66.0%를 가리킴(자료: 文教統計年譜 1989-1992)

〈표 IV-23〉 부모와의 진로문제 대화 정도

				N(%)			
배경별	충분히대화	약간대화함	대화 안함	계	χ^2	df	유의도
남학생	33 (11.5)	200 (69.7)	54 (18.8)	287	0.51	2	N.S
여학생	23 (10.6)	147 (68.1)	46 (21.3)	216			
인문계	29 (12.1)	167 (69.6)	44 (18.3)	240	0.95	2	N.S
자연계	27 (10.3)	180 (68.4)	56 (21.3)	263			
시지역	38 (14.3)	186 (69.9)	42 (15.8)	266	10.65	2	P<.01
읍면지역	17 (7.2)	160 (68.1)	58 (24.7)	235			
전체	56 (11.1)	347 (69.0)	100 (19.9)	503			

〈표 IV-24〉 부모와의 진로문제 대화도움 정도

				N(%)			
배경별	많은 도움됨	조금 도움됨	도움 안됨	계	χ^2	df	유의도
남학생	35 (15.0)	141 (60.3)	58 (24.8)	234	0.98	2	N.S
여학생	30 (18.0)	101 (60.5)	36 (21.5)	167			
인문계	34 (17.4)	107 (54.9)	54 (27.7)	195	5.17	2	N.S
자연계	31 (15.0)	135 (65.5)	40 (19.4)	206			
시지역	40 (18.2)	124 (56.4)	56 (25.5)	220	2.99	2	N.S
읍면지역	25 (14.0)	116 (64.8)	38 (21.2)	179			
전체	65 (16.2)	242 (60.3)	94 (24.4)	401			

〈표 IV-24〉에서 부모와의 대화가 진로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16.2%,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60.3%로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는 〈표 IV-22〉의 교사의 경우와도 잘 대비된다.

결국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진로결정에는 부모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진로지도에 관한 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개개 학생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은 이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변인별 비교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 職業 意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직업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의 수준과 인지정도는 어떠한지, 직업선택 방향의 결정의 유무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1. 취직을 위한 요건

〈표 IV-25〉에서처럼 취직을 위한 요건으로는 남학생이 개인의 능력(62.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신학교(21.1%), 인간성(13.5%), 집안 배경(2.2%) 순으로, 여학생이 개인의 능력(72.5%)이 가장 많고 그의 출신학교와 인간성에서 각각 11.5%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p < .05$)

여학생이 개인의 능력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열별, 학교소재지별 반응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이상(66.7%) 개인의 능력을 취직의 주요요건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의 출신학교(17.1%), 인간성(12.6%), 집안배경(2.1%), 기타(1.5%) 등을 들었다.

2. 희망 직종의 특성

〈표 IV-25〉 취직을 위한 요건

배경별	N(%)					계	x ²	df	유의도
	개인의 능력	출신 학교	집안 환경	인간성	기타				
남학생	172 (62.5)	58 (21.1)	6 (2.2)	37 (13.5)	2 (0.7)	275	10.80	4	P<.05
여학생	145 (72.5)	23 (11.5)	4 (2.0)	23 (11.5)	5 (2.5)	200			
인문계	157 (70.4)	35 (15.7)	2 (0.9)	28 (12.6)	1 (0.4)	223	7.22	4	N.S
자연계	160 (63.5)	46 (18.3)	8 (3.2)	32 (12.7)	6 (2.4)	252			
시지역	167 (66.8)	45 (18.0)	6 (2.4)	29 (11.6)	3 (1.2)	250	1.21	4	N.S
읍면지역	149 (66.5)	36 (16.1)	4 (1.8)	31 (13.8)	4 (1.8)	224			
전체	317 (66.7)	81 (17.1)	10 (2.1)	60 (12.6)	7 (1.5)	475			

〈표 IV-26〉 희망 직종의 특성

배경별	N(%)					계	x ²	df	유의도
	수입	취미 소질	존경	안정	기타				
남학생	33 (11.5)	134 (46.5)	16 (5.6)	100 (34.7)	1 (1.7)	288	15.10	4	P<.01
여학생	10 (4.7)	122 (57.0)	6 (2.8)	76 (35.5)	0 (0.0)	214			
인문계	13 (5.4)	121 (50.6)	15 (6.3)	89 (37.2)	1 (0.4)	239	11.10	4	P<.01
자연계	30 (11.4)	135 (51.3)	7 (2.7)	87 (33.1)	4 (1.5)	263			
시지역	26 (9.8)	140 (52.6)	14 (5.3)	82 (30.8)	4 (1.5)	266	6.44	4	N.S
읍면지역	17 (7.3)	115 (49.1)	9 (3.4)	93 (39.7)	1 (0.4)	234			
전체	43 (8.6)	256 (51.0)	22 (4.4)	176 (35.1)	5 (1.0)	502			

〈표 IV-26〉의 희망 직종의 특성에 대한 성별 반응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취미와 소질에 46.5%로 가장 많은 반응을, 그의 안정(34.7%), 수입(11.5%)순으로 여학생이 취미·소질에 57.0%로 가장 낮은 반응, 그의 안정(35.5%), 수입(4.7%)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있다. ($p < .01$) 여학생이 취미, 소질 및 안정성에 남학생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에 반해 남학생은 취미, 소질 외에도 수입이나 사회적 존경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열별 비교에 있어서는 인문계가 취미·소질에 50.6%, 안정에 37.2%, 존경 6.3%순으로, 자연계가 취미·소질 51.3%, 안정 33.1%, 수입 11.4%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있다. ($p < .05$)

계열별로는 인문, 자연 공히 취미 소질 안정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취미, 소질은 자연계가 안정성은 인문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학교소재지별 반응의 차이비교는 의의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직종으로 전체적으로 취미·소질에 51.0%, 안정성 35.1%, 수입 8.6%, 사회적 존경 4.4%, 기타 1.0%순으로 좋은 직업의 기준으로 이른바 비경제적 가치(86.1%)를 든다.

이 점은 대학을 선택할 때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대학 진학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문제라는 점과는 달리 직업선택은 장래 문제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3. 장래 희망 직업

〈표 IV-27〉은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중 최다 빈도 직업 10개를 각 변인별로 선정한 것이다.

성별에서 남학생은 엔지니어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여 16.0%로 나타나 있으며, 다음으로 교사(10.1%), 건축기사(9.4%), 학자·교수(6.6%), 회사원(6.4%)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교사(17.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사원(14.8%), 학자·교수(6.0%), 약사(5.6%)순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표 IV-27〉 장래 희망 직업

N (%)

배경 순위	성 별		계 열 별		학교소재지별		전 체
	남 학생	여 학생	인 문 계	자 연 계	시 지 역	읍면지역	
1	엔지니어 (16.0)	교 사 (21.8)	교 사 (17.8)	엔지니어 (16.7)	교 사 (13.9)	회 사 원 (17.4)	교 사 (15.1)
2	교 사 (10.1)	회 사 원 (14.8)	회 사 원 (12.9)	건축기사 (12.9)	학자교수 (9.8)	교 사 (16.5)	엔지니어 (10.7)
3	건축기사 (9.4)	학자교수 (6.0)	학자교수 (5.4)	교 사 (12.5)	엔지니어 (8.6)	엔지니어 (13.1)	회 사 원 (9.9)
4	학자교수 (6.6)	약 사 (5.6)	경 영 인 (5.0)	학자교수 (7.2)	건축기사 (7.5)	건축기사 (7.6)	건축기사 (7.5)
5	회 사 원 (6.3)	건축기사 (5.1)	기 자 (5.0)	회 사 원 (7.2)	경 영 인 (5.3)	은 행 원 (3.4)	학자교수 (6.3)
6	경 영 인 (5.6)	디자이너 (4.6)	디자이너 (4.6)	약 사 (6.1)	의 사 (4.9)	자영업자 (3.4)	경 영 인 (3.8)
7	군 · 경 (3.8)	기 자 (4.2)	법 조 인 (4.6)	의 사 (5.3)	기 자 (4.1)	약 사 (3.0)	약 사 (3.4)
8	자영업자 (3.8)	의 사 (4.2)	엔지니어 (4.1)	군 · 경 (3.4)	약 사 (3.4)	군 · 경 (3.0)	자영업자 (3.4)
9	회 계 사 (3.5)	엔지니어 (3.7)	회 계 사 (3.7)	자영업자 (3.0)	회 사 원 (3.4)	학자교수 (2.5)	기 자 (3.0)
10	법 조 인 (2.8)	컴 퓨 터 공 학 자 (3.0)	자영업자 (3.7)	컴 퓨 터 공 학 자 (3.0)	자 영 업 (3.4)	이 · 미용사 (2.5)	의 사 (2.8)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교사(17.8%)가 가장 많고, 다음이 회사원(12.9%), 학자·교수(5.4%), 전문경영인(5.0%), 기자(5.0%) 순이며, 자연계는 엔지니어(16.7%), 건축기사(12.9%), 교사(12.5%), 학자·교수(7.2%), 회사원(7.2%) 순이다.

학교소재지별로 시지역은 교사가 가장 많고(13.9%), 그외 학자·교수(9.8%), 엔지니어(8.6%)를 읍면지역은 회사원(17.4%), 교사(16.5%), 엔지니어(13.1%), 건축기사(7.6%) 순으로 꼽았다.

전체적 경향을 보면 교사가 15.1%로 가장 많은 반응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엔지니어(10.7%), 회사원(9.9%), 건축기사(7.5%), 학자·교수(6.3%)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있다.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교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일이다.

시지역이 직업적 위세가 높고 전문적 창의적인 직업(이른바 成果給的인 職業)을 선호한 반면 읍면지역은 엔지니어나 건축기사 등을 제외하면 교육연한이 짧고 보수와 승진이 근속 연한에 의해 보장되는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

4. 희망직업의 인지 정도

〈표 IV-28〉 희망직업의 인지 정도

배경별				N(%)			
	잘 안다	보통이다	잘모른다	계	χ^2	df	유의도
남 학생	41 (14.6)	177 (63.0)	63 (22.4)	281	1.05	2	N.S
	24 (11.4)	137 (65.2)	49 (23.3)	210			
인 문 계	31 (13.4)	149 (64.2)	52 (22.4)	232	0.04	2	N.S
	34 (13.1)	165 (63.7)	60 (23.2)	259			
시 지역	39 (15.0)	171 (65.8)	50 (19.2)	260	4.75	2	N.S
	26 (11.3)	142 (61.7)	62 (27.0)	230			
전 체	65 (13.2)	314 (64.0)	112 (22.8)	491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IV-28〉에서처럼 보통이다가 64.0%로 가장 많고 잘 모른다가 22.8%, 잘 안다

고 응답한 학생은 불과 13.2%로 전반적으로 학생의 직업인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을 할때 직업에 대한 정보가 극히 미흡한 상태에서 막연히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별 비교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5. 직업선택에 대한 방향 결정

〈표 IV-29〉 직업선택에 대한 방향결정

					N (%)			
배경별	명확히 결정	가능할지 모름	특정직업 결정못함	생각해보지않음	계	χ^2	df	유의도
남학생	20 (7.0)	141 (49.3)	113 (39.5)	12 (4.2)	286	2.29	3	N.S
여학생	14 (6.5)	109 (50.5)	89 (41.2)	4 (1.9)	216			
인문계	13 (5.4)	128 (53.3)	91 (37.9)	8 (3.3)	240	3.05	3	N.S
자연계	21 (8.0)	122 (46.6)	111 (42.4)	8 (3.1)	262			
시지역	22 (8.3)	137 (51.7)	99 (37.4)	7 (2.6)	265	3.81	3	N.S
읍면지역	12 (5.1)	112 (47.7)	103 (43.8)	8 (3.4)	235			
전체	34 (6.8)	250 (49.8)	202 (40.2)	16 (3.2)	502			

〈표 IV-29〉에서처럼 장래의 직업선택의 방향 결정에 대한 변인별 반응은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 '결정은 되었으나 가능할지 모르겠다'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 (49.8%), 다음으로 '특정직업을 결정못했다'(40.2%)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직업선택에 대한 방향이 확고하지 못하여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6. 진로 미결정 이유

〈표 IV-30〉 직업선택에 대한 방향결정

배경별	N(%)					계	x ²	df	유의도
	기회충분	실력부족	선택할지몰라	주위와의견치	기타				
남학생	39 (31.2)	24 (19.2)	49 (39.2)	8 (6.4)	5 (4.0)	125	11.82	4	P<.05
여학생	14 (14.7)	33 (34.7)	40 (42.1)	6 (6.3)	2 (2.1)	95			
인문계	21 (21.2)	31 (31.3)	37 (37.4)	6 (6.1)	4 (4.0)	99	3.51	4	N.S
자연계	32 (26.4)	26 (21.5)	52 (43.0)	8 (6.6)	3 (2.5)	121			
시지역	29 (27.4)	25 (23.6)	43 (40.6)	6 (5.7)	3 (2.8)	106	1.41	4	N.S
읍면지역	24 (21.2)	31 (27.4)	46 (40.7)	8 (7.1)	4 (3.5)	113			
전체	53 (24.1)	57 (25.9)	89 (40.5)	14 (6.4)	7 (3.2)	220			

〈표 IV-30〉에서처럼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몰라서'가 4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실력부족 25.9%, '앞으로 기회가 충분할 것 같아서' 24.1%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비교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 要約 및 結論

A. 要 約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학교의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의 진로의식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양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 중 대학의 계열선정과 관련한 대학진학의식과 직업선택과 관련한 직업의식의 내용과 수준을 밝혀 보려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인문계 고교생의 성별, 계열별, 학교소재지별 특성에 따라

첫째, 고등학교. 계열선택의 과정과 적용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진학 의식은 어떤 수준인가?

셋째, 직업의식은 어떤 수준인가?

연구의 조사 대상은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제주도내 인문계고등학교 6개교(시내-3개교, 시외-3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성별, 계열별로 일정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로는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2년 10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였다. 응답자의 배경에 따른 반응치를 알아보기 위해 X^2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學校 系列 選擇 過程과 適應 程度

① 현재 재학중인 학교선택 동기는 학교소재지별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p < .01$) 시지역은 대학진학에 (42.4%), 읍면지역은 주위권유에 (34.8%)에 높게 반응하고 있다.

② 학교선택의 주체로는 본인(49.5%)과 기타(20.8%)를 꼽았다. 성별($p < .01$), 계열별($p < .05$), 학교소재지별($p < .01$)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여학생일수록 인문계일수록 읍면지역일수록 본인에 높게 반응하고 있다.

③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은 불과 28.2%로 과반수 이상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거나 부적응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p < .05$), 학교소재지별($p < .01$)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에서 시지역에서 다소 적응 정도가 높다.

④ 학교選校때와는 달리 계열선정때는 적성(38.2%)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외 대학진학(29.4%)과 주위 권유(24.9)도 대체로 고려하고 있었다. 성별($p < .05$), 계열별($p < .01$)을 불문하고 적성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교소재지별($p < .05$)에선 시지역은 적성을 읍면지역은 대학진학을 우선시했다.

⑤ 계열선정의 주체에서는 77.2%가 본인이라고 응답해 학교選校때의 본인의 반응 비율보다 높았다. 학교소재지별($p < .01$)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본인에는 시지역이 83.5%, 읍면지역이 70.3%로 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⑥ 선택한 계열에 대해선 45.8%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여 학교생활의 적응정도보다 높다. 학교소재지별($p < .01$)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읍면지역보다 시지역이 적응정도가 높다. 선택계열의 부적응요인으로는 실력부족(45.0%)과 적성에 안맞아(20.2%)를 들고있다.

2. 大學 進學 意識

① 대학진학 목적으로 '구직에 유리하다'에 32.9%, '사회적 인정'에 23.4%, 남들이 가니까'에 21.7%, '지식과 교양'15.4%, '기타' 6.6%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강무섭의 학력의 가치와 기능모델에 적용해 보면 대학진학에 대한 가치부여 양상은 상징적 가치가 가장 우세하고 다음으로 선발적 가치-도구적 가치-목적적 가치 순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이후 대학교육에 대한 변화추이를 보면 학력의 목적적 가치가 퇴조하고 수단적, 도구적, 상징적 가치가 점차 확산되가는 추세이다. 후발적 가치들 중 선발적 도구적 가치의 비중이 상징적 가치에로 옮겨짐으로써 청소년들은 대학을 '인생살이에서 당연히 거쳐야하는 관문 내지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대학진학시 고려요인에 대해선 성별 ($p < .05$), 학교소재지별 ($p < .01$)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이 학문적 흥미·적성(37.8), 장래취업전망(31.3%) 순으로 여학생은 학문적 흥미·적성(43.5%), 입학가능성(36.4%) 순으로 각각 반응했다. 한편 시지역은 학문적 흥미·적성(48.5%), 장래취업전망(27.1%) 순으로, 읍면지역은 입학가능성(42.3%), 학문적 흥미·적성(30.8%)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문적 흥미·적성(40.2%), 입학가능성(31.9%), 장래취업전망(25.9%) 순으로 반응이 나타나 있다.

③ 대학진학에 실패한 경우 '재수하겠다'는 반응은 21.9%, '상황에 따라 재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반응은 53.3%로 78.2%가 재수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재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학교소재지별 ($p < .01$)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시지역일수록 강한 진학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④ 일류대학을 졸업해 얻는 가장 큰 혜택으로는 61.9%가 사회적 인정을 22.6%는 취업에 유리함을 들었다. 학교소재지별 ($p < .05$)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회적 인정의 비중은 읍면지역(67.7%)이 시지역(56.6%)보다 높게 나타난다.

⑤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평가의식을 '누가 대학에 가고 있는가'와 '누가 대학에 가야 하는가'의 격차로 따져 보았을때 대다수의 학생이 '현재의 입시제도를 타당하

지 않다고 보고있다.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학생 중 69.9%가 학문에 적성과 포부가 있는 학생이 대학에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이 가고 있다고 보고, 8.2%는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이 가고 있다고 본다.

⑥ 대학진학시 '대학보다는 학과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반응이 절대적이다(79.2%) 성별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1$) 학과의 중요성에는 남학생이 74.1%, 여학생이 85.9%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과의 선택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진학을 희망하는 계열로 남학생은 공학(38.6%) - 경상(11.9%)계열을 여학생은 교육(15.7%) - 어문학(14.4%)를 꼽아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볼때 남녀간에 선호 계열의 분야나 순위가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 계열별로 인문계는 전계열에 걸쳐 고루 분포하나 자연계는 단연 공학 계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소재지별로 시지역은 공학(30.8%) - 경상(12.0%) - 의약학(9.4%) - 어문학(8.6%) 순이고 읍면지역은 공학(23.6%) - 예체능(11.6%) - 교육(11.6%) - 어문학(10.3%) 순이다.

⑧ 진학을 희망하는 계열에 대해 '잘알고 있다'는 반응은 6.2%에 불과하고 '그저 그렇다'가 52.4%, '잘 모른다'가 41.4%로 전반적으로 희망계열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⑨ 진학결정의 주체로 72.3%가 본인, 14.2%가 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소재지별($p < .01$)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본인에는 시지역이 78.9%, 읍면지역이 65.0%로 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⑩ 흥미검사를 제외한 지능 적성 성격검사등 각종 검사를 대체로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각종 검사들이 실제 진로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p < .01$)

⑪ 진학과 관련된 고민으로는 79.5%가 학업성적을 들었다. 학업성적에 대한 비중은 읍면지역(75.8%)보다 시지역(88.7%)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p < .01$)

⑫ 교사의 진로지도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51.4%로 진로결정의 주체에서 교사의 비중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진로지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로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반응도 21.9%나 되었다. 이는 교사의 진로지도가 실상 소수의 대학진학자를 위한 진학지도에 편중됨으로써 다수의 비진학자나 진학탈락자들에게는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 비교($p < .01$)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남학생은 60.0%, 여학생은 40.4%로 남학생이 다소 교사의 진로지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⑬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부모와 진로문제를 상의한다고 응답했다. 부모와 상의한다는 반응은 학교소재지별($p < .01$)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시지역이 84.2%, 읍면지역이 75.3%로 시지역일수록 진로문제로 부모와 자주 대화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가 도움이 되었느냐는 물음에 76.5%가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하였다. 결국 고등학교의 진로결정에는 부모가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職業 意識

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과반수이상(66.7%)이 개인의 능력을 들었는데 성별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p < .05$) 개인의 능력에는 남학생이 62.5%, 여학생이 72.5%로 여학생의 반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② 좋은 직업의 기준으로 51.0%가 취미 소질을 35.1%가 인간성을 들어 이른바 비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성별($p < .01$), 계열별($p < .01$)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취미 소질에 46.5% 안정성에 34.7%, 여학생이 취미 소질에 57.0% 안정성에 35.5%로 비경제적 가치의 비중은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외 남학생은 수입(11.5%), 사회적 존경(5.6%) 등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계열별에서 인문 자연 공히 취미 소질, 안정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취미 소질은 자연계가 안정성은 인문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③ 장래 희망직업으로 교사(15.1%), 엔지니어(10.7%), 회사원(9.9%), 건축기사(7.5%), 학자 교수(6.3%)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남여별로 남학생이 엔지니어(16.0%), 교사(10.1%), 건축기사(9.4)순으로 여학생이 교사(21.8%), 회사원(14.8%)순으로 들고 있어 교직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 준다.

계열별로 인문계가 교사(17.8%), 회사원(12.9%)를 자연계는 엔지니어(16.7%), 건축기사(12.9%), 교사(12.5%)를 들었다.

학교소재지별로 시지역은 교사(13.9%), 학자 교수(9.8%), 엔지니어(8.6%)를 읍면지역은 회사원(17.4%), 교사(16.5%), 엔지니어(13.1%)를 들어 시지역이 직업위세가 높고 전문적인 직업을 선호한 반면 읍면지역은 직업위세는 낮더라도 안정되고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成果給的인 직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희망직업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한 바 희망직업의 認知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⑤ 직업선택의 방향이 결정되었는가는 물음에 대해 49.8%는 '결정은 되었으나 가능한 지 모르겠다', 40.2%는 '특정직업을 결정 못했다'라고 하여 직업선택의 방향이 확고하지 못하며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몰라서(40.5%)와 실력부족(25.9%)를 들었다.

B. 結論 및 提言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학교의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結 論

첫째, 중학교 단계에서 인문계고등학교 選校가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응답자 대부분이 대학진학과 주위권유를 학교선택 동기로 들고 있었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선택을 행함으로써 그 결과 학교생활에 심각한 부적응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비교적 본인의 적성과 자유의사가 존중되어지는 계열선정때가 그렇지 못한 학교選校때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인문계고등학생의 대학진학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남들이 가니까' 등 이른바 상징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었다. 반면 '지식과 교양을 쌓는다'는 목적적 가치의 비중은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강무섭의 논의처럼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학력관이 근래들어 목적적 가치보다 수단적, 선발적, 상징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는 점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상징적 가치의 비중이 높게 평가됨으로서 인문계고등학생들은 대학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인생살이에서 당연히 거쳐 가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만 하면 특히 일류대학에 진학만 하면 취업이나 사회적 지위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서 공학이나 경상계열 등 소위 '잘 팔리는 학과'가 성별 계열별을 불문하고 선호 학과로 지목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진학당사자의 학과에 대한 인지 수준은 턱없이 낮아 선택한 계열과 계열인지도간에 심한 지체현상을 보이는 바 이는 결국 진로지도 不在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 진로지도자료로 이용되는 각종 심리검사의 활용도가 낮고 교사의 진로지도가 소수를 위한 진학지도에 편중됨으로서 다수의 비진학자 (진학포기자 포함)를 위한 진로지도는 사실상 不在한 상태다. 결국 대다수의 학생이 교사를 대신하여 가족이나 친구, 선배들에게 의존함으로써 적절치 못한 진로결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겠다.

셋째, 인문계고등학생은 직업을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신장시켜 주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이 대체로 선호되고 있었다. 즉 장래희망 직업으로 엔지니어, 건축기사, 학자 교수, 전문경영인 등 이른바 직업적 위세가 높고 전문적인 직종에 높은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시지역소재 학생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대체로 대학(계열)선택시는 상징적, 수단적인利害(취업이나 사회적 상징을 얻는다는 도구적 수단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가 강조되는데 반해 직업선택시는 비교적 가치목적적인利害(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다는 목적적 가치에 바탕을 둔)가 강조되고 있었다.

진학과 직업 선택시 나타나는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조사 대상자가 고교 2학년 학생이어서 취업문제가 대학 진학문제처럼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문제가 아님으로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일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이들에게 희망 직업의 認知정도를 물어 본 결과 불과 13.2%만이 실제 희망 직업을 알고 있다고 했다. 장래 직업선택의 방향 결정에 대해선 거의 방향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확신이 서 있지 않은 상태이고 명확하게 직업선택의 방향이 결정된 학생은 적은 것(6.8%)으로 나타났다.

2. 提 言

첫째,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계열선택과정에 내포된 문제점

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열이 선택되어야 학교생활에 조화와 적응이 잘 이루어지며 여러가지 교육상 역기능들이 감소될 것이다.

둘째, 각급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의 원리에 부합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개발하여 각급 학교의 각 학년 교육 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를 활성화시켜서 고등학교에서의 올바른 진로방향의 설정과 진로의사 결정 및 이에 따른 제반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지도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개개인 특성과 전망 등이 고려되고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업지도의 활성화와 진학지도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직업지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내 취업준비 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일이다. 취업 준비과정은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이점 이외에도 실제 많은 비진학자들을 취업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이들이 무분별한 진학 준비로 인해 낭비되어지는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상당수 보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취업 준비과정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을 취업쪽으로 유도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기능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진학지도의 내실화 방안으로는 진학희망자들에게 지원 대학(교)보다는 지원학과를 먼저 결정하도록 이끌어 주는 일, 그리고 지원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취업전망이나 졸업 후 진출 분야 및 그 학과의 사회적 평판 등과 같은 자기 외적 요인들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 또는 흥미 등과 같은 자기 내적 요인들을 더 중시하도록 이끌어 주는 일 등이 포함된다.

넷째,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에 봉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기 자신의 특성(내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직업과의 관련성은 만족감과 가치상승효과를 높이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역할자들에게 진로영역에 대한 인식의 場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역할자로는 부모, 형제, 교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고등학생의 진로 문제 결정에 부모가 비교적 큰 영향력을 미치고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명백한 부모의 영향력을 인정하여 이들이 진로지도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진로 정보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진로 지도 유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는 학생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부모를 자원인사(volunteer)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또는 학생의 진로발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와 관련된 적절한 교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는 진로에 대한 절박한 사실감에 접근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진로배치 작업을 해야 함으로 카운셀러 이상의 능력있는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교사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는 한 학생이 자신의 미래 생애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생애 개발의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 강무섭. “입시위주교육의 시각”, 「교육개발」 제13권 제2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4.
- 姜武燮·朴英淑, 「學生의 進路決定過程 分析」,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4.
- 姜始瑛, “高校生の 進路選擇 決定과 適應과의 關係”, 濟州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8.
- 吉亨奭, “進路指導 教育과 教育課程”, 「새 교육」 11月號, 서울: 大韓教育聯合會, 1981.
- 金慶甲外, 「教育에 關한 國民意識調查」,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7.
- 金南鎔, “中·高, 大學生의 職業成熟度에 關한 比較 研究”, 慶尚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6.
- 金志安, “進路教育 改善方案 探索을 위한 高校生の 進路意識 比較研究”, 全南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4.
- 金忠起, 「生涯 教育의 基礎」, 서울: 教育研究社, 1984.
- _____, 「進路教育과 進路指導」, 서울: 培英社, 1986.
- 文教統計年譜, 1989~1992.
- 박부권, “서울시 高等학교 학군 조정의 기본 방향”, 「교육개발」 제11권 제5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9.
- 朴 玗, “高等學校 學生들의 進路指導에 關한 調查研究 - 大學 및 系列選擇 指導”, 慶尚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4.
- 朴在洪, “高等學生의 系列選定別 進路意識과 그 進路指導”, 慶南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8.

- 朴贊奉外 1人, 「人文系 高等學校 學生들의 大學 및 學科選擇行動에 관한 研究」, 서울: 中央教育評價院, 1989.
- 裴天雄, 「韓國人的 教育觀 分析」,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6.
- 柳富鉉, “自己理解를 통한 人文系 女高生の 系列選擇 指導事例”, 「第19次 年次發表大會 發表論文集」, 韓國카운셀러 協會, 1984.
- 柳炳彥, “進路意識 成熟과 內外 統制性 및 一般性格檢査 下位變因間的 關係”, 公州 師範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8.
- 李星珍外, 「韓國 中高等學生의 進路意識 發達에 관한 研究」,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4. 3.
- 李定根, 「進路指導와 進路相談」, 서울: 中央適性研究所, 1980.
- 李載昌, 「高卒 非進學者의 進路實態調查研究」, 研究報告 RR 91-4.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91.
- 李宗宰外 3人, 「韓國人的 教育觀-類型的 特性과 葛藤」,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1.
- 任斗淳, 「中學校 進路教育強化 方案 研究」,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RR-92-20, 1992.
- 장석민의.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도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8
- 鄭榮九, “人文系 高校生の 進路指導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4.
- 제주도교육연구원, “계열 선택”, 「진로교육」 제2호. 1990. 12.
- 崔榮杓外 2人 「進路 教育 體制 發展 方向 研究」,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研究報告 RR 87-27, 1987.
- 최운실, “오늘의 청소년, 그들의 의식과 태도를 진단한다.” 「교육월보」 5월호, 서울: 교육부, 1992. 5.

- 許鐵洙. “高校生の進路選擇과 決定의 合理的 方案에 대한 研究”. 「學生生活研究」, 第8輯,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6. 3.
- _____, “大學 및 學科選擇 決定過程과 學業適應과의 關係.” 「學生生活研究」, 第11輯,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9. 2



〈Abstract〉

A Study on the career Awareness in Humanities High School Students

Ko Dong-H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j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Soon-Hyung

A.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isclose the contents and standards of the career awareness in humanities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obtain suggestion as to how activities of the career guidance must be practiced from some aspect.

In this context, the specific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How did they select their high school? And how did they adjust themselves to their new school lives?
2. Analysis the determining course of entering college.
3. Analysis the tendencies of choosing jobs.

B. Methods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504 humanities high school students of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3.

the 2nd grade in cheju-Do by sex, sequence course and region.

The survey instrument is the Career Awareness Questionnaire that was made by researcher,

The statistical methods applying in the study were simple correlation and X²-verification method to recognize the difference of response between variables.

C. Result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

1. The fact shows that the choice of humanities high school was performed by undesirable motive at middle stage. This result can be confirmed in that most of respondents chose humanities high school by the motive of entering college or by the advice of those around. Their choices of school non-considering of the aptitude, ability and interest of individual can lead to serious damages in their school life.

2. With the purpose of entering college in humanities high school students, being acknowledged socially was much accounted of. On the other hand, acquiring knowledge and culture was evaluated low. This result shows that a dominant view of educational history in our society is coincident with the fact that instrumental, selective and symbolic values are much accounted of rather than purposive value in these days. Especially, symbolic value is given much weight, so humanities high school students recognized college as means of "national course to be experienced in life". They belived that entering college, especially college higher grade was an immediate way to get a good occupation and a social position.

They preferred the deparments of engineering or economy. But their cogni-

tive level for departments marked low.

There seemed to be a serious difference between the department choice and cognitive level for department, which means the absence of the career guidance.

Psychological tests using as the materials of the career guidance was shown low in the extent of use and teacher's career guidance attached no small importance to a few students. In fact, the career guidance for a large number of students who can't going on to collage was absent. Finally, the fact that a large number of students depended on family, friends, and seniors instead of teacher was based on the lack of the career guidance

3. Humanities high school students regarded an occupation as the means of exalting their ability and nature. Therefore, they preferred a type of vocation to expend their own ability and nature. They had the tendency to choose a type of occupation such as an architect, a scholar, a professor and a professional manager, etc. Usually in the choice of college, symbolic and instrumental values was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in the choice of occupation, purposive values was emphasized.

The difference of this emphasis was shown because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were 2nd grade students who made no importance of employment and made response on that matter in a disirable direction. In the meantime, when they was asked about cognition of future occupation, only 13.2% of them practically were said to know about it.

Most of them didn't have a certain decision in the choice of future occupation. And the number of the students who made a certain decision marked low 6.8%

(* 다음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의 -에 V표하거나 기술했어 주십시오)

1. 자신이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성에 맞기 때문에
— ②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 ③ 주위사람(교사, 부모)의 권유때문
— ④ 기 타 _____
2. 현재의 고등학교는 주로 누구의 뜻에 의해 선택되었습니까?
— ① 본인
— ② 가족(부모, 형제)
— ③ 선생님
— ④ 친구, 선배
— ⑤ 기 타 _____
3. 현재의 계열(인문계열 혹은 자연계열)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 ① 적성에 맞기때문
— ② 대학 진학을 위해
— ③ 장래 직업을 의식해서
— ④ 기 타 _____
4. 현재의 계열 선택시 누구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까?
— ① 나의 자유의사로
— ② 가족의 권유로
— ③ 선생님의 권유로
— ④ 친구, 선배의 권유로
— ⑤ 기 타 _____
5. 장래의 진로를 고려해 볼때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불만이다.
6. 현재 택한 계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그렇다면 8번으로 넘어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 ② 그저그렇다.
— ③ 불만이다. (그렇다면 7번으로 넘어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7. (6번의 ②③에 답한 사람만 응답합니다) 만약 불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초 실력의 부족으로 따라가기 힘들어서
 — ②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③ 원하는 선택과목(외국어등)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 ④ 학급, 학습 분위기가 나빠서
 — ⑤ 기 타 _____
8. 여러분은 왜 대학에 가고자 합니까?
 — ① 지식과 교양을 쌓기 위하여
 — ②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 ③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 ④ 대학진학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 ⑤ 기 타 _____
9.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 ① 학문적 흥미와 자기의 적성을 고려한다.
 — ② 장래 취업 전망이 어떠한지를 중시한다.
 — ③ 자기의 성적에 맞추어 입학가능성을 고려한다.
 — ④ 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고른다.
 — ⑤ 기 타 _____
10. 만일 대학 진학에 1차로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재수를 해서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겠다.
 — ② 상황을 보아 재수 여부를 결정하겠다.
 — ③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
11. 일류 대학을 졸업하여 얻는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 력
 — ② 동창 관계
 — ③ 취 직
 — ④ 사회적 인정
 — ⑤ 기 타 _____

12-13. 여러분은 현재 대학에는 누가 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학에는 주로 누가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씩만 골라 각각의 해당란에 V표 하여주십시오)

12. 누가 가고 있는가 13. 누가 가야만 하는가

- | | | |
|-----------------------|-------|-------|
| ① 학문에 대한 적성과 포부가 큰 학생 | _____ | _____ |
| ②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 | _____ | _____ |
| ③ 인간성이 좋은 학생 | _____ | _____ |
| ④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 | _____ | _____ |
| ⑤ 기 타 _____ | _____ | _____ |

14. 대학 진학시 대학과 학과중 어느 것의 선택에 비중을 두겠습니까?

- ① 대학의 선택
— ② 학과의 선택

15. 여러분은 어떤 계열, 어떤 학과로 진학하고 싶습니까? (계열은 해당란에 V표하고 학과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 | (계열) | (학과) | | (계열) | (학과) |
|----------|-------|-------|-----------|-------|-------|
| ① 어문학 계열 | _____ | _____ | ⑧ 농학 계열 | _____ | _____ |
| ② 인문 계열 | _____ | _____ | ⑨ 수산·해양계열 | _____ | _____ |
| ③ 법정 계열 | _____ | _____ | ⑩ 가정 계열 | _____ | _____ |
| ④ 경상 계열 | _____ | _____ | ⑪ 예체능 계열 | _____ | _____ |
| ⑤ 사회 계열 | _____ | _____ | ⑫ 교육 계열 | _____ | _____ |
| ⑥ 이학 계열 | _____ | _____ | ⑬ 의·약학 계열 | _____ | _____ |
| ⑦ 공학 계열 | _____ | _____ | | | |

16. 그 계열이나 그 학과에 대하여(교육 내용, 요구되는 적성, 취업 분야등)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보통이다.
— ③ 잘 모른다.

17. 계열이나 특정 학과를 결정할 때 주로 누구의 의견에 따르겠습니까?

- ① 본인의 의사 — ④ 친구, 선배
— ② 가족(부모, 형제) — ⑤ 기 타 _____
— ③ 선생님

18. 학교에서 다음 검사들 실시하였습니까? 실시했다면 그 결과가 여러분의 진로 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도움됨	그저그렇다	도움안됨	실시안함
(1) 지능 검사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2) 적성 검사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3) 흥미 검사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3) 성격 검사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19. 진학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 ① 학업 성적
- ② 취 업
- ③ 가정 문제
- ④ 기 타 _____

20. 학교 선생님의 진로 지도가 여러분이 계열이나 학과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① 많은 도움이 됨
- ② 조금 도움이 됨
- ③ 별로 도움이 안됨
- ④ 받아 본 적이 없음

21. 계열이나 학과선정등 진학 문제로 부모님(또는 보호자)과는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는 편입니까?

- ① 충분히 대화함 (그렇다면 22번으로 넘어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 ② 약간 대화함
- ③ 대화 안나눔 (그렇다면 23번으로 넘어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22. (21번의 ①②에 답한 사람만 응답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① 많은 도움이 됨
- ② 조금 도움이 됨
- ③ 별로 도움 안됨

23.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보십니까?

- ① 개인의 능력 — ④ 원만한 인간성
- ② 출신 학교 — ⑤ 기 타 _____
- ③ 집안 배경

24.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입이 많은 직업
- ② 취미나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
- ③ 존경받는 직업
- ④ 안정된 직업
- ⑤ 기 타 _____

25. 여러분의 장차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26. 여러분은 그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안다.
- ② 보통이다.
- ③ 잘 모른다.

27. 장래 자신이 종사할 직업은 결정되었습니까?

- ① 명확히 결정되었다.
- ② 결정은 했으나 가능할 지 모르겠다.
- ③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생각은 있으나, 특정직업을 결정 못하고 있다.
- ④ 생각해 본 일이 없다.

(28번으로 갑니다.)

28. (27번의 ③④에 답한 사람만 응답합니다) 장래 직업이 결정안된 상태라면 그 이유는?

- ① 앞으로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 ② 직업분야는 결정됐으나 실력이 부족해서
- ③ 어떤 직업을 선택할 지 몰라서
- ④ 부모나 주위어른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 ⑤ 기 타 _____

(수고하셨습니다)